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K-드림 협업체」발대식 개최!

드림팀 15명으로 구성,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의지 천명 입국·교육·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경상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도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케이(K)-드림 협업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K-드림 협업체는 도 - 호치민시 한국 교육원 - 대학 - 기업 - 해외유학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경상북도는 도내 일반대·전문대에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와 함께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역 대학 및 기업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업을 기반으로 해외 인재들이 경북에서 유학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구축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전문가 중 2명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발대식에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경북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

한 '케이(K)-드림 협업체'는 앞으로 지역·대학·기업 간의 연계·협업을 기반으로 경북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F-2-R)와 연계해 지역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역 대학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해외유학생 계약학과' 신설·운영,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맞춤형 규제 특례 발굴, 해외 주요 기관과 해외 우수대학을 직접 방문해 해외유학생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분산 활동 중인 해외인력 유치 주체들을 하나로 묶어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우수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정착하여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누리호 발사체 국내 유일 민간 단 조립장 순천에 착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첫삽

전라남도는 15일 순천 울촌산단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총괄 제작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 허브(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송상락 광안권자유구역청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도화사업단장 등 우주산업 관련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항우연이 주관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업체로 선정돼 국내 300여 참여 기업과 협력해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제작을 총괄한다.

지난해 5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1.5톤 위성을 700km 위성궤도에 쏘아올릴 3단형 우주발사체다. 1, 2, 3단 단조립을 이번에 구축되는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에서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각 단을 조립한 후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하는 등 총조립과 발사를 3차례 할 예정이다. 누리호 고도화사업 수행과 상업 우주시대 도래를 대비한 미래발사체 제작 기반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민간기업

투자유치 실현이다.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산업 확대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산업이다. 전남이 대한민국 우주강국 실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끈임없이 도전하는 '그레이트 챌린저' 한화그룹이 전남도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월 고흥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내 국가산단 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우주발사체 핵심 구성품의 제조시설을 건설하기로 전남도와, 고흥군과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체 핵심 기반시설 조성과 발사체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발사체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경기도 김동연,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 레드팀 쓴소리에 개선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기 레드팀의 '쓴소리'를 받아들여 도청에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주간업무보고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북부청에서 열린 도청 열린회의에서 '3기 레드팀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 시간을 마련했다.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3기 레드팀은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쓴소리를 김동연 지사에게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레드팀은 "매주 회의를 위한 관행적인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이 수일 전 변경되거나 불참통보 등으로 실무부서는 힘이 들어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3기 레드팀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 추진

주간업무보고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달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종이 없이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짚은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다.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2월 안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레드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매일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 줄이기 실천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 잔반 없는 날 운영·홍보, 잔반 없는 직

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언급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매일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자. 저부터 구내식당에서 해보겠다"며 관련 실국에 추진을 지시했다.

3기 레드팀은 핵심의제 발굴 및 속성을 위해 1~2기와는 달리 정기회의(3회) 외에 비대면 영상회의를 3회 추진했다. 또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레드팀과 블루팀(실무부서) 간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실행방안 모색을 논의해 왔다.

3기 레드팀의 활동기간은 2월까지다. 이어 4기 레드팀을 구성해 그동안 논의했던 비판과 안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도정에 과감한 비판을 이어가고 도민 입장을 반영한 생활밀착 정책 제안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꼭지 하나 달렸을 뿐인데... 청송사과 더욱 신선합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경북도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

경상북도의회는 2월 15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루었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를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



회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 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 활동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9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제322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5일 오후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항기 법률부대표, 김경호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신미래교육과장, 엄병현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5일 오후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항기 법률부대표, 김경호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신미래교육과장, 엄병현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21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문해력의 기준은 어휘·탐색 및 확인·통합 및 해석·평가 및 적용이며 수리력은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검사 결과는 하위 영역별 기초수준은 주의·경계·안전 3단계로 나누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는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되며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에 "평가가 서울학생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환경적, 제도적 차이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늘봄학교 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과정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38개교에 그치고 있어 추진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진행의 장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이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5월,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있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지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회계로 관리하

는 문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의힘과 서울시간의 당정협의회는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강철원 부시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주용대 미래전략본부장, 이동용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특보, 강명 정무수석, 한병우 주택정책실장, 김성모 재단안전관리실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재용 도시공간기획관,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제322회 임시회에 논의할 과제와 조례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도시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보고했다. 오는 3월 30일 김포폴드라인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의 가능한 운송 수단부터 연계 추진하고 참여 도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월 23일부터 판매한 기후동행카드 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용, iOS 운영체제와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물카드용 두 가지로, 이미 36만 8천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또, 강남역,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잠실역과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은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버스노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역사로 사용될 선착장은 추가·업무·상업·관광 등 배후지역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성 및 인접한 나들목 위치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마곡, 망월,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선착장 7개소를 선정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수요가 높은 마곡, 여의도, 잠실 3개 선착장은 급행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3천 원이며,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리버버스 이용객 수는 '25년 80만 명에서 '30년 2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9천 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공간본부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경제정책실은 '인베스터를 위한 출연기관 전환추진', 주택정책실은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계획', 푸른도시여가국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재단안전관리실은 '한강교량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 평생교육국은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론 운영',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사업을 차례로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서울 전지역 승리를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이 발표한 '경로당 주 7일 중식제공 공약' 추진에 맞춰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원내단은 조례가 제322회 임시회 기간 통과될 수 있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회부할 방침이다.

최광수/기자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원안 가결'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 1/3 이내 조정, 외부 전문가 1/3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 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

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이천시의회 '임금님표 이천쌀' 첫 모내기

"황금빛 풍년 기원" 한 목소리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과 의원들이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천시의회 의원 6명을 비롯한 김경희 시장과 권혁준 호법농업협동조합장 등 50여 명이 이천시 호법면 소재 240평 규모의 연동하우스 시설에서 전국 첫 모내기를 진행했다.

지난 1월 19일 육묘를 파종한 데 이어, 6월 중 수확 예정인 이번 모내기는 국내 육성품종인 '다평'으로 타품종에 비해 풍부한 수확량을 자랑하고

키다리병, 흰잎마름병 등 각종 병해에 강하다고 알려졌다.

김하식 의장은 "이천에서 수확되는 쌀은 예로부터 쌀알이 울퉁차고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국 최고의 품질인 이천쌀의 풍년을 기원하며 이천쌀 홍보와 쌀 소비 확대에 이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금님표 이천쌀'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 후 이천시 관내에서 생산된 쌀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저출산대책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2월 16일, 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울산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1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관련 정책 등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출산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손 의원은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울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정주인구가 아닌 일시적 증가이며, 울산의 출생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올릴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울산 출생아 수는 2021년 6,127명(전년 누계비 △7.4%), 2022년 5,399명(전년 누계비 △11.9%), 2023년 1~11월 4,693명(전년 동기간 누계비 △7.3%)으로 매년 약 천명씩 숫자가 줄고 있다.

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시책이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단발적인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출

산정책 수립 시 사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가 반영되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2024년도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저출산 극복 시책 수립의 첫 단추인 출산영향평가의 실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울산 출산율 증가라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질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민·최수진·권정국·최재은·최소연·최민호·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경 제 부: 내선 (114)	오 리 언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 2024년 “물관리 자치단체 우수사례”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수상

이천시가 국회환경포럼·(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위터저널이 공동주최한 '2024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물관리 자치단체 우수사례 최우수상(맑은물 공급 분야)'을 수상했다.

2024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상수·고도정수처리, 하수·물재이용, 물산업 분야 정부 정책방향, 국내외 신기술 소개를 주제로 지난 2월 15일 경주백컨벤션센터에서 '제40회 2024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됐다.

맑은물 공급 및 신기술 실용화에 앞장서 온 이천시의 ▶비상급수체계 구축사업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정수장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 도입 ▶콘크리트 내구성 기능 회복을 위한 침전지 방수공사 ▶유해성분 없는 안심수도미터 교체사업 등이 전국 지자체의 맑은물 공급에 일조할 수 있는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최우수상(맑은물 공급 분야)을 수상하게 됐다.

이천시는 30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

과하여 노후화된 도수관로의 지속적인 파손·누수 사고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간 비상관로를 연결하는 ▶비상급수체계 구축사업 추진, 여주시에 위치한 이천취수장부터 이천정수장까지 24km의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 정수장 소독제 관련 법 강화 및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를 설치하여 2024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이천정수장 침전지, 응집지의 도장이 광범위하게 벗겨져 내부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약화시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득한 기법을 도입하여 ▶콘크리트 내구성 기능회복을 위한 방수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성분 없는 안심수도미터 교체사업은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노후계량기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친환경 수도미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는 환경을 살리고 시민의 안전한 정수환경 구축을 위해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표오염원 유입 등으로 지하수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 방치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수도물 공급 종합관리계획'에 의거, 이천취수장 시설개선 및 취수원 추가확보 사업, 도수관로 중간가압 설치공사, 이천정수장 노후설비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사업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의 위험도 남지 않도록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에 최선”

과기부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미니팹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시, 산자부와 적극 협력·대응키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실증할 수 있는 최첨단 미니팹(테스트 베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팹은 클린룸 내에 12인치 웨이

퍼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속원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사업비는 9060억원 규모이며, 국비 3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간 자본 4400억원이 투입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비 7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의회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팹 건설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

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인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상/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생활체육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 모두 챙길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후 3시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번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지역 내 생활밀착형 공공 체육시설은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

공원 국민체육센터, 중원구 종합스포츠클러스터를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게 됐다”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높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돌아보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관한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8609㎡ 규모로 ▲지상 1층은 길이 25m, 5개 레인의 수영장 ▲2층은 헬스장과 배드민턴·탁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3층은 요가·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등이 각각 들어섰다.

체육센터 건물 외벽에는 별도 인공 암벽장을 설치해 클라이밍을 할 수 있으며 지하 1층(61면)과 지상층(44면)에 총 105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김범상/기자

이천우 여주시장, 기업 투자유치 활동 박차



이천우 여주시장은 지난 14일 투자유치 기업을 방문해 투자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여주시는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인구정책, 고령화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투자유치 전담조직 신설 등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주)그리너지, (주)크린랩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여주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총 96만㎡ 규모의 산업단지 16개소 조성중이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모영역 등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장에서는 이천우 시장은 (주)성우모터스의 현황과 비전, 투자계획 등 설명을 듣고 국내최초 특장차 라인생산공정을 견학하였다. 아울러,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면서,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천우 여주시장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의 궁극적 목표는 시의 인구를 늘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여주를 만드는데 있다.”며 “여주시는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그날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입주할 자립준비청년 모집

셰어하우스 CON 2호, 5호, 6호 입주... 여성 4명, 남성 3명 모집

수원시가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에 입주할 자립준비청년 7명을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셰어하우스 CON 2호(영통구 태안4동)에 입주할 여성 청년 1명, 5호(권선구 서둔동)·6호(권선구 세류2동) 입주할 남녀 청년 각 3명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셰어하우스 CON 2호는 올해 11월까지, 5·6호는 2026년 3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또는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자립준비청년'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5일부터 23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방문(수원시청 별관 7층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정오부터 13시까지 제외).

서류 검토, 면접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은 오리엔테이션 후 3월 말 입주하게 된다.

수원시의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금·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공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개인·공용 공간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설치돼 있다.

수원시는 입주 청년들에게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청년 관련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관련 기관에 연계해 준다.

아울러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입주 청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해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하고, 만기 퇴소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임대보

증금 등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셰어하우스 CON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산비탈,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칠백공원, 죽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육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화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광주시, 도로 보상대상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광주시는 최근 도로 보상대상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 전역에 도로 개설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사업 등을 추진해 오며 도로 사업 구간의 체계적인 관리 자료나 현황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신속한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보상대상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보상대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도로 보상대상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접목함으로써 기존 광주시 공

간정보시스템 상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스템 운영으로 ▲손실보상 사업계획 기본정보 ▲사업에 대한 고시 정보 ▲토지 산정 조서 ▲협의내역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 사항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가 가능하게 됐다.

방세환 시장은 "보상대상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상자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도로 행정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한 행정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작년보다 혜택가구 늘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고양특례시는 지난 달 약 1개월 동안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1,32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총 1,323가구 중 2023년에 출산하여 첫 혜택을 받게 되는 신규가구는 44%(585가구), 2022년에 출산하여 두 번째로 혜택을 받을 2회 차 신청가구는 33%(431가구), 2021년에 출산하여 세 번째로 혜택을 받을 3회 차 신청가구는 23%(307가구)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3회 차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에는 693가구, 2023년에는 1,126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작년 대비 15% 증가한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200가구 가량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융기

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3월 말까지 신청 서류를 통해 부동산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소득기준, 무주택 여부 등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를 제외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3월 말에 일괄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개별 입금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출산가구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출산가구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화성시, 관리천 방제дук 해체 및 방제작업 마무리

화성시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리천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16일 방제дук 10개 중 화성시 구간 방제дук 5개를 개방했으며, 오는 18일까지 나머지 방제дук을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15일에는 평택시 구간 방제дук 3개를 철거했다.

시는 경기도보전환경연구원의 화성시 구간의 하천 토양·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틀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며 최하류 구간 하천수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해 통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월 9일 사

고 발생 직후부터 38일간 특수차 약 5,400대 장비 등을 동원해, 사고지점부터 평택시 한산교까지 관리천의 오염수 8만 4천톤 가량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태안정을 위해 자체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해당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경보 판단 기준에 지자체 경계 구간 사고 발생과 지방하천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하남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하남시가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원(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의 승인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에 가입했다.

시는 202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 수상과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이뤄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은, 하남시의 시민평생학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세계

학습도시로 구성된 유네스코 국제 네트워크로, 79개국 356개 도시(국내 56개 도시)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5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을 신청했고, 평생학습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으며, 지난 14일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원(UIL)의 최종 승인을 거쳐 네트워크 가입이 확정됐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은, 하남시의 시민평생학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세계

▲지역적 학습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별자리 학습공간 및 평생학습마을 운영 ▲하남명사특강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A-B-C 하남형 평생학습모델 구축을 통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전국 최초 부서 간 경계를 넘는 평생학습 협업 추진 ▲장애인, 시니어, 직장인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등이 가입 배경으로 주요했다.

이현재 시장은 "회원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평생학습 체계를 한층 더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해 나가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평생직업교육 성과확산 포럼 성황리 개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성과 공유...수도권 유일 A등급 달성

안양시는 지난 15일 안양시-대림대-연성대가 공동 운영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성과확산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성대 인스퍼레이션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HiVE 사업 실무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HiVE 사업의 성과 및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2차년도 과업을 진행 중인 HiVE 사업은 지역 정주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학·관 컨소시엄을 통해 지식기반, 문화콘텐츠 산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성인 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산업계 전문가 협력 강의 등

지역특화분야 프로젝트 기반 교육(PBL)을 발판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학과 지역 인재 인준제(HiVE-IN)'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지원 교육, 골목상권 살리기 버스킹 프로그램 등 지역 공헌을 위한 교육과정들도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2022년 대림대, 연성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작년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수도권 내 유일한 A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도 안양시는 대림대, 연성대와의 끈끈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평생직업교육 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관람객 10만 명 기념행사 개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산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화랑로에 소재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지난 2022년 9월 개관한 이후, 약 1년여 만에 1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고 16일 밝혔다.

10만 번째 관람객은 단체예약을 통해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어린이집 원아들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10만 번째 관람객을 직접 맞은 이민근 시장은 원아들과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며 기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시장은 "10만 번째 관람객의 주인공이 아이들이라 더 의미 있는 것 같다"며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통해 자랑스러운 안산의 역사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향후 1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개관한 산업사 전문박물관으로서 유아를 비롯해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관 이후 GOD 멤버 김태우 등 유명 가수의 초청공연을 비롯해 여름철 옥상 영화관람과 같은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막한 기획전시 '산업! 안산을 설계하다'는 화성·시흥·안양·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전시된다.

최정부/기자



광명시 행정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신청해요!

법률 상담 등 행정서비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에 정보 제공

광명시는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및 우리노무사 상담 등 행정서비스를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공공자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시민은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 및 노무 상담 등 행정서비스는 물론 공공캠핑장, 공공웨딩홀, 체육시설, 회의실, 전시장 등 각종 대관시설 예약이 가능하다.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강좌, 강습에서 가정에서 필요한 전통드림 등 생활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주차장, 휠체어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경기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3년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과 3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

권동일/기자



경기도, 미술시장 활성화 위한 '아트경기' 참여작가-협력사업자 공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14일부터 27일까지 '2024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이하 아트경기)' 추진을 위한 참여 작가 및 협력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아트경기는 경기도 내 역량있는 시각예술가(회화·조각 등)를 발굴해 창작활동을 돕고 미술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미술품 임대·전시 사업 ▲경기아트페어 개최 ▲중저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장터 ▲복합문화시설 내 미술품 감상과 구입이 가능한 팝업갤러리 등으로 구성되며 미술품 임대·판매를 통해 작가들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도내 시각예술가 65명

과 미술품 전문 유통사업자 6개 사이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출품지원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미술품 판매 사업과 임대 사업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아 작가들의 특성에 맞춰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각예술가와 협력사업자는 신청서와 필수 제출자료 등을 작성해 2월 14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장애 예술인의 경우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공모를 진행



한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고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트경기 작가 및 협력사업자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아트경기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경기교육 및 도정 발전에 공헌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며,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안명규 의원은 제6대와 제7대 파주시의회 부의장, 대표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다.

안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경기교육 및 도정 발전과 지방자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고충과 지역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지역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SOC 건설·교통 문제 등 현안과 낙후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품과 끈질기고 집요한 목표의식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이다.

안명규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이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발판 삼아 부지런히 뛰면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16일 '2024년 제1회 정보화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지속 추진 강조!

오후 5시 의회 3층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서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16일 '2024년 제1회 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도의회의 지속적인 디지털 의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의회 3층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정보화사업 운영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정보화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과 김현석 부위원장(국힘, 과천), 오지훈(더민주, 하남3)·김일중(국힘, 이천1)·정동혁(더민주, 고양3) 위원 등의 도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인 홍석환 (췌)디지털 대표, 강용범 (췌)누리 이사와 당연

직 위원인 양성호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이 배석했다.

위원들은 주요 안건으로 ▲정보화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추진 ▲의정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의회 홈페이지 운영계획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계획 ▲방송시스템 운영계획 ▲정보화기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SNS 운영계획 등을 다뤘다.

먼저, 위원회는 디지털 의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의원 및 직원들의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강화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와의 연계성도 주문했다.

또한, '의정포털시스템'과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의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나가면서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여 시스템의 사용률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작년 의정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의정포털시스템의 로그인 시 생체 및 PIN 인증을 도입해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실시간 되돌려 보기, 이른바 '퀵VOD' 서비스를 지방의회 최초로 제공했다.

올해는 브리핑룸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생중계 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의회의 언론



브리핑을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 경기도의회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디지털 기반의 의정활동이 도민의 즉각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의회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과 발전 방향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내 거점지역 연계관광 초석 다진다

16일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 '구체적 실행 방안 포함돼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16일 '경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관광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를 시작한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관광 연구'의 내용을 점검·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중간 보고회에는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을 비롯해 김선영, 김옥순, 김철진, 서현욱, 안명규, 오세풍, 오준환, 유종상, 윤종식, 이인규, 이해원, 임광현, 장민수, 전석훈, 조용호, 최효숙, 명재성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내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의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었다"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경기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광자원에 대한 제고,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를 담당하는 신한대학교 박용민 교수는 "1단계에 거점도시 6개, 2단계에 핵심 연계 도시 15개를 설정하고, 3단계에 지역별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핵심 연계도시 기준 유형별 벨트안 11개를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원들이 지적인 의견을 최종 보고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최종 연구 결과는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제안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 관광벨트의 통합적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해 2월 29일 보고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도의원,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의 문제 발굴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의원들에게 시상한다.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

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 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발전적 대안 제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로 모범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체전을 유치했으며, 가평군 기회응급 시스템 구축과 북한강 수

변 관광특구 지정 및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노력해왔다.

임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기도와 가평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범상/기자



농업의 미래,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포럼 개최

농식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 新산업 육성 방안 모색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융복합 구조로 대전환 선도

경상북도는 16일 경북대학교에서 (사)경북세계농업포럼과 함께 “경북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으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린바이오 분야 글로벌 시장은 2020년 1조 2,207억 불에서 2027년 1조 9,208억 불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바이오 시장(2020) : 글로벌 1조 2,207억 불, 국내 5.4조 원(세계시장의 0.3%)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도내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관계자,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방안,



지역 사례에 대한 발표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기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과장은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과 식품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기존농업 발전은 물론 관련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도영 포항테크노파크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생물, 종자, 동물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 등 6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규제혁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례발표에서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산업 주요 소재인 헴프와 곤충에 대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경북산업융합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농협회사법인 시그널케어의 ‘식용곤충 산업화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상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식품분야 인프라 확충, 시장 창출, R&D 및 인력양성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기존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 농업구조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선종 15주기 추모 참배

김진열 군수, “추기경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나눔, 봉사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히

군위군은 16일 선종 15주기를 맞아 군위를 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생가에서 추모 참배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진열 군수, 박수현 군의회 의장, 이정옥 신부, 군의원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헌화와 묵념을 하였고, 참배를 마친 군위군 관계자들은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을 둘러보며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남매 중 막내로 대구 외가에서 태어나, 군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전신인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어린 시절을 군위에서 보냈다.

김진열 군수는 “추기경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나눔, 봉사 정신으로 우리 사

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13대 조영인 회장 이임, 제14대 성명숙 회장 취임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조영인 회장 이임 및 제14대 성명숙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내빈소개와 이임회장 공적소개를 시작으로 감사장 수여, 이임사,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기 전수, 취임회장 약력소개, 취임사, 축사, 임원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여성원로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취

임을 축하했다.

조영인 이임 회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사와 사업에 열정을 갖고 동참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새로 취임하실 회장님과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양성평등한 통영을 이뤄 나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늘 회원들과 함께 여성단체협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성명숙 신임 회장은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위해 노력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서 이뤄놓은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모두가 화목한 통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개 단위원체 5,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명숙 회장과 함께 고말선 부회장, 문영미 부회장, 박소연 총무, 박현숙 서기, 백연숙 부서기, 최양정 회계, 강시자 부회계로 구성된 임원단은 제14대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출발을 다짐했다.

이윤준/기자

2024년 대구 남구 대명3동과 함께하는 삼천원의 행복

대구 남구 대명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대명3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위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위촉, 2023년 성과 및 활동 보고, 2024년 특화사업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특히, 청룡의 힘찬 기운을 머금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명3동 이웃들에게 값진 행복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는 “2024년 대명3동과 함께하는 삼천원의 행복 Start!”를 슬로건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명3동과 함께하는 삼천원의 행복”사업은 2022년 모금액 1,112만원으로 190세대의 지역주민 복지사업을 위해 쓰여졌으며, 2023년 12월말 기준 총 89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2024년 대명3동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따뜻한 이웃 돌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2024년 1차 정기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 홀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생신상 ▲ 폭염 대비 건강한 여름나기 ▲ 축하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선정된 마을 특화사업인 “건강 튼튼 힘찬 걸음 사랑의 실버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행복 선물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한편 대명3동 삼천원의 행복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착한 이웃 기부 참여 운동으로 현재 123명의 후원자와 16개소의 착한 가게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일시 후원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대명3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팔 위원장은 “삼천원의 행복 사업은 우리 위원들과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금액으로 직접 이웃을 도와드릴 수 있어 더욱더 의미가 깊다.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대명3동 도미화동장은 “우리 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 돌봄 사업이 활발히 이

김동현/기자

봉화군, 2024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봉화군은 16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배진태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목표, 집행률 제고방안,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 관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상반기 집행의 최대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선순환과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점정책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부출을 통해 지

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배진태 부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군의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계획한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금정구 장전1동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기탁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에서는 금정구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이 주최한 아나바다 장터에서 원아들이 사용하지 않는 책, 옷, 장난감 등을 가져와 직접 판매한 수익금과 아이들의

용돈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어린이집 김선희 원장은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물자 절약을 실천하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서 감사

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장전1동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 돌봄 맞춤형 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쓰여 질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고향사랑의 마음 가득 ~’ 울진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119% 초과달성

손병복 울진군수, “울진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공감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자금 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히

울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830건, 2억 200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 1억 7천만원 대비 119%를 달성했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전체 기부자 전체 1,783명 중 100만원 미만 기부자가 1,770명으로 1억 6700 만원을 기부했고, 지역별로는 경상도 504명 (4600만원), 연령별로는 30~50대 (558명)가 가장 많았다.

답례품은 18종류 56품목 중 꿀, 대게가공품, 가지미, 오징어 순으로 선호하였고 기부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군은 2024년 목표액 2억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 기금 사업 발굴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공감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금 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공포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사적 모임·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기부 권유·독려 가능(법률 공포후 6개월 후 시행)하고 기부금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대(2025년 1월 시행) 내용을 담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문화/기자

윤근수/기자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선포 앞두고 긴급 상황점검

김학홍 행정부지사, 실국장 회의 주재... 전략 및 추진상황 점검 20일 선포식 앞두고 실국장 소집... “저출생과 전쟁 총력 집중해달라”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도 지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5일 아침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구상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저출생과 전쟁본부에서 그간 마련한 기본 전략구상과 20일에 개최 예정인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후 실국별 의견 제시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야별로 보고되어, 실국별 대응방안과 중요사항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저출생과 전쟁 본부는 종합상황실이다. 도의 모든 부

야에서 역할을 집중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선포식이 기록제가 되어 향후 기본구상에 포함된 사업의 구체화와 지속력 있는 실행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의 동향과 만일의 사태에 따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보고되었는데, 김 부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당분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면서 저출생과 전쟁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상황점검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사업' 최종 선정대!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 23억 3천만 원 확보

◆ 인재 발굴·육성, 기업발굴·매칭, 기업 적응, 고용유지 등 부산지역 청년수요 맞춤형 토달케어 시스템 구축 예정

◆ 청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취업 확대 기대

부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해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실업 초기 청년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를 돕고, 경력설계, 진로 탐색, 실전 취업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지원과 직장 적응, 지역 정주까지 지역 중심의 청년 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산시는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국비 23억 3천만 원, 시비 8억 1천만 원 등 총 3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청년카페 운영) 6천 명,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 1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재 발굴과 육성, 기업발굴과 매칭, 기업 적응, 고용유지의 4단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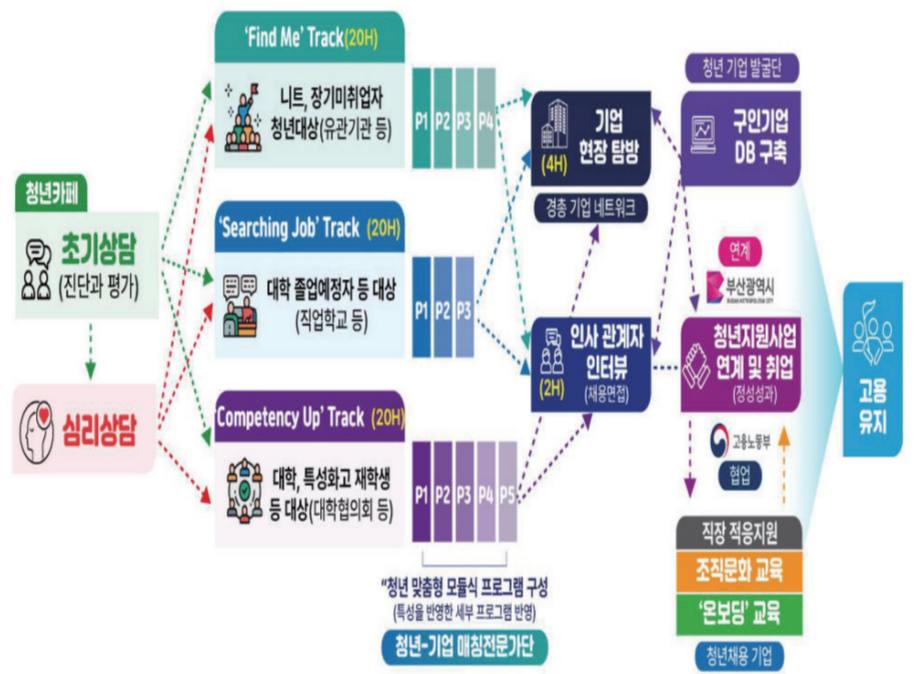
원체제로, 부산지역 청년수요 맞춤형 토달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두드림센터 개편을 통해 청년잡(JOB) 성장카페 2개소를 구축하여 초기 상담을 통한 청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내담자의 자신감 회복, 취업 집중, 진로 집중의 세 가지 프로그램 트랙을 통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취업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직무, 직종 등의 현장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기업발굴단을 통해 매출·순이익, 평균 재직기간, 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기업 DB를 구축하고, 전문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매칭전문가단을 운영하여 청년-기업 매칭 서비스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특화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의사소통 능력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대표,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도 실시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지역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채용시장의 약화에 따른 구직 단념 청년은 매년 증가 추세"라며, "청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취업 확대를 청년

이 즐겁게 머물고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ABB 테스트베드 실증으로 지역기업 판로 한계 극복!

전년 실증지원 5개사, 공공부문 실증 기반으로 ABB 솔루션 고도화 달성
관련 매출 26억 원, 신규 고용 30명, 지식재산권 3건 등 사업성과 확보
올해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 사업 2.27.(화)까지 신청접수
선정기업 최대 0.9억 원 지원, 추가로 사업화 지원 병행해 기술혁신 적극 지원

대구시가 ABB 산업 육성과 ICT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시행한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 사업(이하 'ABB 실증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ABB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 실증과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처음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지역 기업이 보유한 ABB 솔루션에 대해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증확인서 발급/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기술 상용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성과 창출 기업은 스마트공장 공공기업인 (주)케이솔루션과 빅데이터·딥러닝 기반 솔루션기업인 (주)YH 데이터베이스이다.

(주)케이솔루션은 ABB 기술을 접목한 '연색산업단지관리공단 생산설비 고장 예지기능 고도화'를 통해 산업용 설비의 고장예측 솔루션을 확보해 향후 품질 문제 및 안전위험 발생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확장을 위

해 신규로 14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에 큰 성과를 달성했다.

(주)YH데이터베이스는 '국세보상운동 기념도서관 융합형 도서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을 통해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과 도서관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결합된 도서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했고 특히,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 선택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공되는 시민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가 특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 'MICE 산업 비즈니스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ABB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은 지역 ICT기업이 미래 ABB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다"며, "지역기업이 ABB 기술 고도화로 판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업은 2월 27일(화)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공모에 참여할 기업은 대구TP 홈페이지(www.dgtp.or.kr) 등에서 공고 및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군민 곁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윤경희 청송군수,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등 각종 민원편의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송군은 매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오지 마을을 방문해 지적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6일에는 파천면 어천1리 경로당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등의 민원을 원활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해 군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

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지난해 총 13개 마을을 방문해 토지이동(75건 84필지), 지적상담(18건 22필지) 등 총 93건 106필지의 민원을 현장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경로당·마을회관 이외에도 전통시장·청송사과축제공과 등과 같이 주민들이 군집하는 곳을 방문하여 지적민원 현장처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등을 비롯한 각종 민원편의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별 방문계획은 군청 홈페이지, 반사회보와 스마트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54-870-6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특화활동가 양성과정 수료

오도창 영양군수, “지역특화활동가들이 액션그룹과 함께 주민과 양성한 교류 활동으로 문제 해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솟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살기 좋은 농촌도시 되길 희망”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는 22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액션그룹을 발굴하여 1단계 소액지원사업과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지역 특화 활동가 양성과정은 지난 23년 12월부터 24년 1월초까지 진행된 지역활동가(퍼실리테이터) 전문 자격과정에 이은 심화과정으로 1월 23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6회차 교육을 실시해, 16명의 지역특화활동가를 배출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역활동가(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이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중심의 과정으로 저출산에 따른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단장 김진진)은 지역활동가 전문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강생들이 이번 특화교육 수료로 액션그룹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조정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과정으로 배출된 지역특화활동가들이 액션그룹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의 양성한 교류 및 활동으로 지역 내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 하나씩 해결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살기 좋은 농촌도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프리미엄급 수출용 포도 글로리스타, 캔디클라렛 농가 보급

10개 묘목 업체와 2024년부터 7년간 32만 주 통상 실시 계약체결 경북도 육성 붉은색 포도로 샤인머스켓 대체 수출 시장 선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에서 개발한 프리미엄급 수출용 적색 포도 품종 '글로리스타'와 색다른 맛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과 맛 포도 '캔디클라렛'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15일 묘목 업체와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업체는 대경포도점목묘영농조합법인, 경민농원, 그린농원, 금릉농원, 색깔포도영농조합법인, 요엘수목원, 원울농원, 지지농원, 충청농원, 만금농원으로 총 10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통상실시로 인한 총 판매예정 수량은 글로리스타 21만 주, 캔디클라렛 11만 주 등 32만 주(면적 320ha)로 2024년부터 7년간 보급한다.

'글로리스타' 품종은 9월 하순~10월 상순에 수확, 포도알이 크고 당도가 20. Brix 정도로 높으며 청량한 식감을 가진 송이 전체가 붉은색으로 착색이 잘되는 수출 주력 품종이다.

캔디클라렛 품종은 사과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기존 품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주황색 포도다.

2023년 기준 전국 포도 수출량은 3천 8백 톤, 수출액은 4천 6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34.5% 증가했으며, 경북은 3천 535만 달러로 전국의 77%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지다.



그러나 샤인머스켓 품종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중국산 샤인머스켓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 대량 유통되면서 재배 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샤인머스켓 품종과 차별되는 새로운 품종으로 수입 포도 품종을 대체하고, 종자주권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인공교배와 특성 조사·연구를 시작, 경북 수출 포도 1호 레드클라렛 등 10품종을 육성해 4품종 30만 4천 주를 보급했다.

올해부터 구미, 김천, 상주 등 3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경북

도 육성 포도 수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수출 규격품 생산 기술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국을 선점하고 확대해 나간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에서 육성한 포도가 베트남, 대만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한국포도수출연합(주), 포도수출지원단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는 중형무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오늘 계약을 맺은 묘목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동래구-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동래구, 관내 소상공인에 보증 수수료 지원협약 체결

부산 동래구는 지난 15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낮은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전문 신용보증기관이다.

동래구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해, 동래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료 지원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원 이내의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초년도(1년차) 보증료를 0.3% 감면 받아 업체당 최대 약 9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래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액 기준 총 267

억 원 규모에 달하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며, 관내 약 1천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고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내인 사업자이다.

보증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감면되며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또는 시청지점을 방문하거나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busansinbo.or.kr를 확인하거나 부산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051-860-6600)로 문

의하면 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고금리·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및 보증 수수료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예천군, 고품질 예천쌀 미국 수출길에 올라

38톤 물량 미국 수출로 농가 소득 UP!

예천군은 16일 예천쌀 38톤이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군은 16일 개포면 경진리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김학동 군수, 최병욱 군의장, 진준문 NH농협무역 대표이사, 이달호(예천·) 이인진(지보·) 윤동훈(남예천) 농협조합장, 윤여호 예천조공대표, 수출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적된 예천쌀은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도정 가공한 쌀로 총 38톤 규모이며, NH농협무역을 통해 미국 수출길에 올랐을 것이다.

예천군은 지난해 총 1,300여 톤의 예천쌀을 수출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소비자를 일망타진 사로잡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앞으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예천군이 농산물유통망 확대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보에 집중해 온 결과로 예천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에서 생산된 쌀이 품질과 맛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갑질년 새해부터 세계 최대 식품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수출돼서 매우 기쁘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농산물 판매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천 농산물 수출 물량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출 농가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을 만드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일/기자

영양군, 관내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배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및 사전 방제를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대량으로 4회차분의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배부한다.

방제약제는 농약 공급업체를 통해 3월 중순까지 농가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4종의 방제약제뿐만 아니라 방제체계가 안내된 리플릿을 함께 배부하여 농민들이 약제 방제 시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가에서는 리플릿을 참고하여 반드시 적기에 방제하고 방제확인서와 사용한 약제 봉지(농약병)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감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에서 발생한다. 확산 속도도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약제가 없기에 발생 시 해당 농가뿐 아니라 주변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으로 적기 방제, 사전 예방 및 현장 지도 등으로 과수화상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과수화상병은 치료 약제가 없는 만큼 배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여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동구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대구 동구청이 관내 중소기업 활력도모와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올해 실시한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이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임차해 제공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기업의 현안 문제를

7개 분야 전문가의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애로 전문가 지원사업', 각종 인증 취득에 따른 인증평가 수수료 90%까지 지원하는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지원사업',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도 시행한다.

지난해 동구청은 30개 기업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를 지원했으며, 제품 디자인개발/특허·특허기술 등 8건의 지식재산권 출원도 지원했다. 특히, 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덕군 영덕읍체육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영덕군 영덕읍체육회는 지난 2월 15일 영덕읍사무소에서 최병일 이임회장과 박재열 취임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및 의원, 김서규 영덕군체육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병일 이임 회장은 "박재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재임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주민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재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체육회 임원진들과 열심히 뛰면서 주민 화합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쌀 10kg짜리 40포대 전량을 읍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읍사무소에

위탁했다.

장문화/기자



안동시, 바이오·백신산업 미래발전전략 논하다

안동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위한 포럼 개최 연구기관, 기업 간 지식과 경험 나눠 선순환 기대

안동시는 지난 14, 15일 양일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국가백신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미래 방향 공동 포럼'에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 개발·산업화할 특화단지를 공모 중이다.

안동시는 바이오·백신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질병청,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경북지역의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첫날(14일) 주제 강연으로 ▲공공백신개발센터 이유경 과장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역할 및 미래가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성백린 이사장이 '미래감염병 대응 백신 상용화 기반 기술'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이 '글로벌 백신 동향 및 국제백신연구소 협력방안' ▲안동대학교 임재환 교수가 '안동백신클러스터와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강연을 펼쳤다.

이튿날(15일)에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조동훈 팀장이 '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 소개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전략' ▲경북지역평가단 권오준 팀장이 '국가산단중심의 킥스타트 사업'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준 박사가 '화학연구원 현황 및 연계협력 방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경철 박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황 및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15일에는 바이오 기업과 연구



기관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안동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세계가 바이오 경제로 진입함에 따른 바이오산업 동향 파악과 안동시 바이오산업 방향성 모색 등으로, 차별화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보 안동시 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라며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는 충분히 현실 가능하며 안동시도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출연기관 전담팀을 구성, 운

영 중이며 특화단지 유치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모색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광활성화에 시·군 힘 합친다

관광역점시책과 도정 주요 아젠다 공유를 위한 시·군 관광과장 회의개최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와 시·군 현안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경상북도는 15일 경주에 있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22개 시·군 관광부서장이 참석한 2024년도 경상북도 주요 관광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협력을 다짐하고 도내 관광 활성화 방

안 대해 함께 논의했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기간 성과를 담은 영상을 활용해 홍보하고 개최도시 선정일까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 각종 회의시 홍보문구 활용 등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2005년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수많은 국제회의 유치 경험이 풍부하고 보문단지 내 호텔과 회의장이 모여있어 참가국 최정상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동이 편리한 경주시를 APEC 정상회의 유치 최적지로 홍보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의는 경북도와 시·군의 2024년도 관광시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서 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하기 위한 도·시·군 소통의 장을 마련한데 그 의미가 있다.

경북도는 도내 시·군의 특색을 살린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역점 시책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민간 자본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에 각 1호 호텔을 조성하여 이색숙박 시설과 민간 자본을 투입한 고급 숙박 시설의 이용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관광 1억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명품 관광숙박시설과 경북형 이색 체험 관광숙박시설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성공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제2의 전성기 연다’ 하반기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산·학·연 집적 국내 최대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가속’ 2027년 준공, 4700여명 고용 창출 및 연간 760억원 경제 유발효과 기대

영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제2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16일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은 총사업비 2964억 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5971㎡(약 3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어링(전·후방 포함), 기계, 경량 소재 등 총 16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 인구증가,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미래산업의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어링 국가산업단은 시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주력 사업의 하나로, 2018년 국가산업단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0년 10월 지방 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통과, 2021년 3월 사업실시계획 수립 신청과 지난해 8월 국토부 최종 승인까지 지역 안팎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시는 국가산업단의 성공과 빠른 조성을 위해 현 5월 협의의 보상을 시작으로 8월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인프라 구축 국가산업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중요한 만큼, 하드웨어 건설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영주에는 2018년 준공된 국내 유일의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와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 등 이미 임주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

는 가운데, 2025년까지 베어링제조기술센터와 경량소재표면처리기술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국내 최대의 베어링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춘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동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기계공학’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학적 기초지식, 3차원 설계, 기계 제작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 유망기업 유치가 달려있다는 판단하에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全)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의 입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베어링 중심도시 영주, 제2의 전성기로 도약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4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통해 1만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라며, “영주는 물론 대한민국 부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굳은 각오를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영주시가 앞으로 소재부품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금자/기자

달성군, 보건복지부 주관 ‘AI 복지상담’ 대구에서 첫 시범사업 선정

복지위기가구 AI 활용 초기상담 실시, 신속·정확한 민원 대응 성과 기대



달성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인공지능(AI)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초기상담 구축 시범사업’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은 집중 발굴 대상 중 계절형 실업, 휴·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가구, 단전·단

수·단가스, 공공요금/건강 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위험가구에 대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진행해 복지욕구/가정내 문제상황,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파악 후 상담정보를 기반으로 읍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에서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AI 초기상담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능유류 및 개선사항, 상담 시나리오와 업무절차의 고도화 등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며, 시범사업 후 주민 의견수렴, 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전화 기반 대화 시스템(아웃바운드 콜)’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후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복지기동대, 희망가족돌봄지원 등 공적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 민간 서비스 연계, 후원 물품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험단계별 문제상황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행복나눔 안부문의 사업’, ‘온기함께 지원사업’,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 자도 안부전화’, ‘AI스피커를 활용한 ‘24시간 AI돌봄사업’ 등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

축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인공지능 초기상담 등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서비스가 일상화 되고 있다”며 “AI를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폭넓게 도입하여 군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AI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달성군의 ‘복지사각지대 AI 초기상담 시범사업’ 선정 사유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고 읍면별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점을 꼽으며, 현재 전국 1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어르신 건강은 어떠신가요?’ 금정구,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 도입

부산시 금정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관심 부족, 개인정보 제공 기피 및 건강 등의 이유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은 65세 이상 환급대상자의 주소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환급 안내 및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환급신청서 접수와 수령 계좌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지 방문 시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지방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보건관리 점검 실시

상주시는 2024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 따라 15일 시 소속 사업장인 한방건강센터(은척면 소재)에 대해 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관리자와 한방센터 관계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함께 현장을 살폈다. 구체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일반질병 유소견자 파악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인자 파악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황인수 안전재난실장은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보건관리점검과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증진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의성군 안계미술관, 공예주간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김주수 의성군수, “안계미술관 공예주간 행사와 청년예술가 협업 프로그램인 청년 예술캠프사업 연계, 청년예술가 지속 성장 지원과 군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의성군 안계미술관, 공예주간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의성군은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미술관”(관장 김현주)이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1,500 만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6개의 프로그램이 접수되었으며 안계미술관을 비롯해 총 14개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예주간」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문화 축제로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본 사업을 통해 안계미술관은 <도약하는 손길, 창조적 미: 공예 도약>을 주제로 오는 5월 안계미술관, 안계행복플랫폼 일대에서 △공예작품 전시 △공예마켓 △공예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난해 안계미술관은 공예작가 8인의 전시와 더불어 관내 주민 대상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여 공예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계미술관 공예주간 행사와 청년예술가 협업 프로그램인 청년예술캠프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내 청년예술가의 지속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전남도, 어업인과 손잡고 '겨울철 스타' 꼼치 자원 회복 나선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인공부화 자어 2천900만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겨울철 남해안 별미로 알려진 꼼치(물메기) 자원 회복을 위해 여수 두포포 해역에 7회에 걸쳐 2천416만 마리를 방류했고, 앞으로도 약 500만 마리 이상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야만 그 진가를 인정받는 꼼치는 음력 설을 전후해 최고의 맛을 낸다.

예전에는 어업인에게 인기가 없어 그물에 잡혀 올라오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배 뒤편으로 던져버리곤 했는데 물에 빠질 때 첨벙 소리가 나므로 '물텀벙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요즘은 예년에 비해 어획량이 줄고 겨울철 별미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몸값이 크게 올라 연안 어가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심 50~80m의 필질인 지역에 서식하는 저서성 어류로 산란을 위해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3월) 연안으로 이동해 해조류 줄기뿐만 아니라 어망이나 통발 등에 수정란 덩어리를 붙이는 특징이 있다. 이같이 어획 도구와 함께 포획된 수정란이 부화되기 전 어미와 같이 수집되거나 바다에 버려져 자원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8년부터 여수지역 꼼치 통발 어업인과 손잡고 '꼼치 자원조성 업무협약'을 해 어업인 참여형 방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억 2천757만 마리를 방류해 연안 꼼치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방류행사 이후에도 2월 말까지 자체 방류뿐만 아니라 화양면 안포리에 꼼치 해상부화장을 설치해 자연 부화·방류를 함께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매년 어린 꼼치 방류량을 확대해 겨울철 대표 거머리인 꼼치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2023년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 시단위 중 순천시가 나등급 유입, 민원서비스 우수성 인정

순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광역시·초지자체 등 전국 306개 행정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순천시가 전라남도 시단위 중 유일하게 나등급을 받았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코너, 민원실 인터넷방(팩스, 복사기, 컴퓨터 무료 이용), 독서카페, 건강축적코너, 민원상담인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8기에 카카오톡 일사천리 순천을 개설해 시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을 카카오톡을 통해 제출하면 단순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복합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민원창구 시스템을 활용한 시장에게 바

란다, 시민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신속한 해소방안을 마련했고, 신규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시장실에서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등 기관장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민원콜센터와 정원박람회콜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정원박람회콜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했다.

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각 부서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여권 야간 발급 창구 운영, 직원 역량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일류 순천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졸깃한 식감, 밥맛 최고' 나주쌀 새청무 뉴질랜드 수출 첫 포문 열었다

140톤 규모 역대 최대 수출 물량 달성



영산강이 굽이도는 기른 땅에서 재배한 밥맛 좋은 나주쌀 '새청무'가 뉴질랜드 첫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새청무 수출계약 물량은 총 140톤으로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 수출실적 달성이라는 경이사를 이뤘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16일 동강면에 위치한 나주시통합RPC에서 새청무 뉴질랜드 첫 수출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청무 쌀은 병해·도복에 강한 기존 품종인 새누리 쌀과 식감이 좋은 청무 쌀의 장점만 골라내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 육성 품종이다.

존득한 찰기에 씹을수록 단맛이 나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쌀알이 일반 쌀보다 1.3배가량 크고 수분 함량이 낮아 고고고들 씹는 맛 또한 일품이다.

이날 선적한 새청무 쌀은 20톤 규모로 향후 1년간 총 7회에 걸쳐 뉴질랜드 내 한인·중국 마트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상차식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시의회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손금주 전 국회의원, 임봉의 나주통합RPC대표,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권오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식품이사, 농협중앙회 신정훈 나주시지부장, 지역 농협조합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통합RPC는 209억원 규모 고품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지난해 문을 열었다. 가공현대화 시설 및 버건조·저장시설 등 최첨단 시설에서 엄선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도정되는 '왕건이 탐년 쌀'은 지난해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품질 좋은 쌀 생산과 나주 쌀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 함께 노력해주시는 농업인과 법인 관계자분들의 값진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나주쌀이 위촉된 국내 쌀 산업 부흥을 선도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 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뉴질랜드를 교두보 삼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인근 국가인 호주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는 포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해 900만불 규모 농수산식품 수출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역 농산물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5월 뉴질랜드와 호주, 9월 캐나다에서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영만/기자



강진군, 함께 돌보고 키우는 '키움놀이 카페' 개소

아동친화도시 앞장...유리 구분 영유아아동방 동시 돌봄 가능



강진군이 지난 15일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3층에 아동친화 및 여성친화 도시 사업의 하나로 강진군 직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키움놀이 카페'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작 첫날, 30여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했으며, 풍선으로 장식된 아기자기한 놀이공간에서 축하 폭죽을 터트리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의집 1~2층에서는 4차산업혁명 체험, 공예체험,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했다.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강진군 육아수당을 비롯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확대·지원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진군 관내 많은 놀이시설들이 설치돼 있으나 학교와 어린이집 놀이터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놀이기구 또한 다양하지 않아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이용률이 높은 편인 육아지원센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및 수련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시설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이에 강진군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놀이공간과 함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키움놀이 카페'를 개소했다.

'키움놀이 카페'는 연령별로 다른 놀이문화를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방과 아동방을 분리했다.

영·유아방은 5세 미만이 부모 동반하에 이용이 가능하며, 부모들의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육아카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가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갖추고, 수유의자·아기침대가 있는 수유실도 마련했다.

아동방은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며, 레고, 슬라이드, 클레이, 트램펄린 등 다양한 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학원이 끝난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책을 읽거나 숙제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방과 아동방은 유리구분돼 있어 영·유아방에서 동생을 돌보는 부모가 아동방에서 큰아이가 노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청소년 문화의집 1~2층에서 댄스, 포켓볼, 노래 등을 즐길 수 있어, '키움놀이 카페' 운영을 통해 0세부터 17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전국 최고, 최장의 육아수당 정책에 따라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이 신설되는 등 강진군은 저출산 정책에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지역 내 아동·부모들의 어린이 놀이터 확충에 대한 수요를 적극 수렴해 키움놀이 카페를 개소했고 이를 시작으로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남원시 만든다 남원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남원시가 안전해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해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

시는 2월 16일 사건사고 및 재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남원시가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소도시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부서 관계자, 유관부서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내용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가 화재 5등급, 교통사고 5등급, 생활안전 4등급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 개선이 필요했고, 게다가 사건·사고 및 재난 등에 즉각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 부재하고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부재

로 협력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러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본 사업을 통해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응해 경찰·소방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자동화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횡단보도 2개소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부서·기관과 연계한 통합 안전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IoT 인프라를 활용한 안심마을 서비스, 화재안전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민승규 농업경제학 박사 초청 함평아카데미 강연

'함평군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 주제로 함평엑스포공원서 열려

전남 함평군이 주최하는 '함평아카데미'가 2024년도 그 두 번째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함평군은 미래 농업의 혁신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 농업 분야의 권위자인 민승규 박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2월 16일 오후 3시에 함평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청년후계농, 청년 농업인, 읍면별 작목반 등 다양한 농업 관계자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민승규 박사는 '함평군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의 최신 트

랜드와 이를 통한 지역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민승규 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농식품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 함평군 농업인들은 미래 농업 기술의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적응 전략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민승규 박사의 강연이 함평군 농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으며, 모든 함평 군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 농업에 대한 통찰력을 높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걱정은 줄어들고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있는 도민은 77.9%로 지난 조사*보다 2.3%p 증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 전북 사회조사'는 전북 1만3천515개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2만1천323명)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도 특성항목 등 7개 부문(조사항목 44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문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삶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삶(6.55

점), 지역생활(6.40점), 여제 행복(6.53점), 여제 걱정(4.10점)으로 2021년 대비 자신의 삶(0.15점), 지역생활(0.20점), 여제 행복(0.23점)은 증가하고, 여제 걱정(3.90점)은 감소했다.

[교육] 평생교육 희망강좌 1순위는 스포츠 레저 관련 교육(16.4%), 건강 관련 교육(15.5%), 직업 및 업무 관련 교육(13.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는 교육 환경(34.0%), 보육 환경(50.8%), 교육기회 충분성(30.5%)으로 2021년 대비 교육 환경(6.4%p), 보육 환경(13.4%p), 교육기회 충분성(6.1%p)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의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도민은 67.9%로 2021년 대비 0.4%p 증가했고, 향후 하고 싶은 운동은 수영(19.5%), 골프(14.1%), 걷기(14.0%), 요가(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3.0%로 2021년 대비 3.2%p 증가했고,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진료/입원 대기시간이 길다(30.7%),

치료 결과가 미흡(16.2%), 불친절(14.4%)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교통]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 있는 도민은 77.9%, 현재 시군 거주 의사있는 도민은 77.0%로 2021년 대비 각각 2.3%p, 3.7%p 증가했다. 통학·통근 시간은 교통수단은 24.0분, 도보는 12.1분이고, 통학·통근 시간 단축을 위한 필요사항은 상습 정체구간 해소(44.9%),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21.1%), 출퇴근 시차제(18.9%)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환경 만족도는 녹지환경(50.3%), 수질(47.5%), 토양(43.2%), 소음·진동(41.2%), 대기(36.8%)로 2021년 대비 녹지환경(-3.1%p), 수질(-5.0%p), 토양(-3.6%p), 소음·진동(-1.7%p), 대기(-9.9%p) 모두 감소했다.

[여가·문화] 지역 문화예술행사 개최 찬성은 71.6%, 만족은 56.4%로 2021년 대비 찬성(11.7%p), 만족(5.3%p)이 모두 증가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불만족한 이유는 내용이 다양하지 않음(31.4%), 수준이 낮음

(18.8%), 준비 부족(17.8%), 비쌌(13.3%)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야간 보행 중 두려움을 느낀 경험은 25.6%로 2021년 대비 1.0%p 감소했다. 두려움의 주요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61.9%), 가로등이 없어서(34.1%)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34.2%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했고, 2021년 대비 7.2%p 증가했다.

김광영 도지사는 "올해 2024년을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하며, "전북 사회조사 참여로 도정 발전에 힘이 되어주시는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 높은 정책을 개발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전북소개-도정자료-통계로 본 전북-통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전 연령층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박차

조성위원회 열어 2025년도 제3기 인증대비 총력 다짐

광주 동구는 지난 15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첫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갖고, 전 연령층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동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노인 분야 전문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 구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위원 위촉장 수여 ▲과년도 주요 사업 성과 공유 ▲올해 역점 추진 사업 보고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동구는 지난 2017년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증을 받은 고령친화도시로서, 올해 제2기(2020년부터 24년) 인증 5년 차에 접어들며 11개 관련 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노인복지 분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올해는 2025년도 제3기 인증을 준

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충분한 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8대 중점 영역(외부공간·건물, 교통, 주택, 의사소통·정보, 시민참여와 고용, 지역사회지원과 보건,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과 관련한 기존 40개 사업을 검토 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고령친화도시 동구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도시, 노후에도 능동적인 사회참여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어르신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백년 동아리' ▲찾아가는 명화극장 ▲어르신 알권리 존중을 위한 '6.5 Day' ▲고령 친화 모니터단 운영 ▲어르신과 지역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소통경로당' 조성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병수/기자

진도군,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전국, 군 단위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

진도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가 등급)기관에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전국 광역(17·기초(226)자치단체, 시도교육청(17)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분야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총

3개 분야,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로 평가점수를 종합해 5개 등급으로 차등 평가한다.

진도군은 지난 2022년 '라'등급에서 2023년은 3단계가 상승한 '가'등급을 달성해 전국의 군 단위에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반영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았다.

군은 군민을 위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민원서비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좋은 진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와 편의시책을 발굴해 군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군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드는 보성군, 주민참여예산 상시 접수

보성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접수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 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제안은 보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보성군에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군 누리집(홈페이지) '정보공개' 예산정보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다음 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투자 대상 사업,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중점 검토해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5년

도 예산에 반영된다. 단, 2024년 9월 1일 이후 접수 건은 익년도(2026년) 사업에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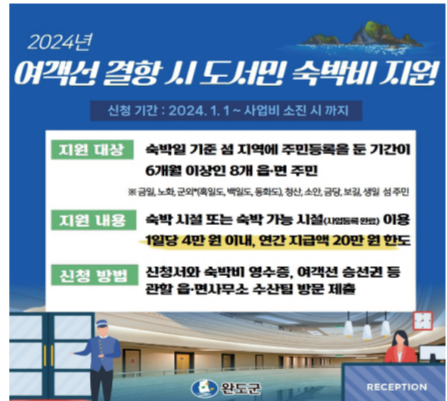
보성군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제안 사업은 44건으로 60억 원, 선정 사업은 18건으로 54억 7,800만 원이 반영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매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내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다.

보성군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추진해 오고 있다.

최원영/기자



완도군은 여객선 결항 시 도서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상 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해

완도군, "여객선 결항 시 도서 주민 숙박비 지원합니다!"

1일 4만 원, 연간 한도 20만 원 지원

야 하는 경우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금일, 노화, 군외(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에 거주하는 섬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4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 원이다.

숙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수산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1년 12월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330명의 섬 주민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올해는 더 많은 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본 사업 추진으로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숙박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해양대학교 목포 준치 희망 입장 밝혀

대학 내 '미래생존전략' 공모 결과 '인천대와 통합(안)' 다수 득표



박홍률 목포시장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통합(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장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 31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주제의 내부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44%로 최대 다수(안)로 나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1952년 독립 목포상선고등학교로 출발해 해양도시 목포와 함께 성장해 온 목포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다"면서 "이번 정책공모 결과(안)대로 인천대학교와 통합이 추진된다면 목포시의 역사와 목포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22만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저출산과 학생인구 감소로 학생유치가 어려운 것은 지방대학의 일반적인 문제"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지역대학들이 서로 힘을 합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목포시에서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준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시간을 거쳐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면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종배/기자



강원도, 강원2024 성공개최 협력 대한체육회에 감사패 전달

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의 우수한 성적을 이끈 보이지 않는 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15일 도청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와 흥행에 크게 기여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 대상자는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선수단 이혁렬 단

장 ▲대한민국 선수단 이태영 부단장 ▲대한체육회 국제대회부 홍우택 부장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배성욱 과장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유고는 대리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최선규 대리 ▲대한체육회 국제대회부 김효은 주무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선수단은 청소년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무팀 운영과 안전·인권·도핑 교육 등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청소년 국가대표들이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봅슬레이, 스노보드 등 다양한 종목에서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펼칠 수 있었고,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역대 최대 흥행을 견인했다. 김진태 지사는 "2024 강원 동계청

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해 온 결과이고 여러분의 노력도 올림픽의 유산 중 하나"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강원도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레거시 활용과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도에서는 2024 강원의 성공개최를 이끌어준 소방, 경찰, 시군 공무원 300명, 체육회, 조직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자 100명 총 400명을 선정해 유공자 표창을 할 계획이며, 금년 중으로 자원봉사자 홈커밍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철/기자

아산시, 시민들의 힐링 공간 '신정호 아트밸리 피크닉장' 개장

사전 예약 추첨제 운용, 매달 20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아산시가 겨울철 동파 방지와 시설 재정비를 위해 운영 중단했던 신정호 아트밸리 피크닉장을 오는 3월 16일부터 개장한다. 신정호 아트밸리 피크닉장은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바비큐 등을 즐길 수 있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찾아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명소다. 피크닉장은 몽골텐트 38개 동(테이블 26개, 데크형 평상 12개) 규모로 1일 2회(11시부터 15시, 17시부터 21시) 무료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시는 개장 전까지 노후화된 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을 넘어 전국적인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은 신정호 아트밸리의 대표 힐링 공간인 피크닉장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신정호수공원 누리집에서 예약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20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예약 접수하면 26일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한일 경제협력 새 거점' 본격 가동

"일본사무소는 정상화된 한일 셔틀외교 발전의 씨앗·동력 될 것"

충남도가 한일 경제협력과 셔틀외교 발전을 뒷받침하고 도내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견인할 새로운 거점을 도코에 마련, 본격 가동을 앞박아 선언했다. 도는 16일 일본 도쿄 뉴오타리호텔에서 충청남도 일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홍 지사와 윤덕민 주일대한국대사,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지사, 김옥채 요코하마 총영사, 류기환 재일총영협회장, 이육순 세계총청향우회회장, 카와무라 타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 호사카 산도쿄일한친선협회 연합회 회장, 구마모토현·시즈오카현 도쿄사무소장, 일본 주재 기업과 공공기관, 재일한인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쿄 신주쿠구에 설치한 일본사무소는 성용찬 사무관을 소장으로 파견했다. 일본사무소는 도의 통상 진흥과 외자유치,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다. 주요 역할은 도내 북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기업 대상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 수출 계약 지원, 수출애로 지원, 시장 동향 정보 제공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이다. 또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 관광객 유치, 국제 교류협력,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도 편다. 이날 개소식은 김 지사 환영사, 외빈축사, 사무소 운영계획 보고, 테이프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일본 사무소를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은 한국의 4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일본의 5위 교역국으로 양국은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며 "충남은 무역수지 전국 2위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첨단산업 선도 지역이자, 일본과 역사문화적으로 깊이 연결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일본사무소를 통해 양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일본사무소는 충남의 대사관이자 충남 기업의 해외지사로서, 구마모토와 시즈오카, 나라 등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충남 기업의 영업사원 역할을 적극 해낼 것"이라며 "충남을 넘어 '한일 양국의 창구'가 될 일본사무소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화된 한일 셔틀외교를 충남이 역할을 찾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일본사무소는 국가적으로는 작지만, 한일 셔틀외교 발전을 위한 씨앗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마시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충남과 나라현은 1500년 전부터 교류해왔고, 그 인연으로 2011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라며 충남에 대한 친근함을 표했다. 야마시타 지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됐고, 이런 국가 간 교류를 뒷받침

하기 위해선 지방 간 교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일본사무소 개소가 나라현과 충남, 한일 정부의 깊은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용찬 소장은 일본사무소 운영 계획 보고를 통해 "도내 기업들은 바이어 찾기,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바이어와의 거래 실무 지원 등을 바라고 있었다"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전문 플랫폼 구축과 충남 투자통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등 5곳에서 해외사무소를 가동 중이며, 미국과 중국 등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해외사무소의 통상 지원과 외자유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내년에는 시군,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태백시-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태백 핵심광물 협력센터 개관

태백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은 오는 20일 황지동 행정복지센터(구)농업기술센터) 3층에 '태백 핵심광물 협력센터'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장, 박서연 부원장, 허정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김광현 태백원료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협력센터는 태백시 핵심광물 가공처리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설계 및 핵심광물 가공처리 기술 확보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는 향후 '자원 중심도시 태백'을 목표로 장성광업소 폐광 후 순차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폐광부지에 핵심광물 가공처리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인구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대한민국 핵심광물 주요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핵심광물은 기존 일반 광물자원에 비해 매장량이 적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대체재 확보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원개발 및 활용 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10대 핵심광물 중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코발트를 제외한 7대 광물에 대한 비축물량도 전무한 실정이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낼 브랜드 대상 수상

1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룸에서 열려

원주시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인물(기업/기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낼 브랜드 대상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과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공공기관(동반성장 부문), 제조업, 금융, 관광 등 5개 분야를 시상했다. 지방자치부문 대상 수상한 원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 중심도시 육성 ▲언제나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총총한 복지 정책추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적극 행정과 시정혁신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원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는 15년간 장기 표류하던 원주 부른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른 IC 신설, 신규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 중부권 제1의 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반도체 교육센터,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 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AI 의료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안전도시 원주'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

고,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원주시 주요 역점 사업들을 내실 있게 설계하고 실현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디자인으로 경북 중소기업 성장을 이끈다!

분야별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발전 견인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과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디자인 산업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육성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과 경북 디자인 전문기업 대상 전문가 멘토링,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 제품·서비스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디자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관련 분야 투자액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간 디자인 활용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추진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을 위한 ▲수출마케팅 원스톱 지원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영상디자인 ▲디자인에해결지원, ▲웹 상세페이지 디자인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패키지(전문가멘토링, 상품개발제작, 마케팅지원, 스케일업 컨설팅 등)가 있다.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개별 공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g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모집하는 수출마케팅 원스톱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확대를 위한 시장 맞춤형 상품 출시를 도와려고 해외 시장조사, 상품기획부터

제품·브랜드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경북지역 중소 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과 제품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 16:00까지이며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www.rdcdp.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 결과로 전주기 디자인 3건, 제품 디자인 4건, 브랜드 디자인 6건, 디자인 애로 해결 74건,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패키지 6건 등 총 258건을 지원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22건, 기업 만족도 96.3%, 매출성장률 11.7%(예상)를 달성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과 경북형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기업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의 디자인산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별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들과 함께 그리는 미래!

청도군은 지난 달 4일부터 2월 16일까지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발전계획' 중 읍면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런 간담회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비전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읍면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읍면별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경북연구원의 중장기발전계획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 읍면별 현황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발표 후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용역을 시작하여 착수보고회, 현장조사, 정책지원 TF팀을 구성하여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전

문가 자문회의, 군민참여-미래세대 워크숍, 2차 읍면간담회,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안한 의견들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9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지역 자산 및 잠재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구미시⇔공동주택 건설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의기투합'

대광로제비양, 괴평·송림공동주택 사업주체 · 시공사와 협약체결



구미시는 1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대광에이엠씨, (주)대광건설, (주)성한건설과 지역건설업체 공사 참여 확

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관내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 2곳의 사업 주체,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앞으로 착공 예정인 사업 주체, 시공사와도 협약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협약은 대광로제비양 사업 주체 (주)대광에이엠씨는 경기도에, 시공사인 (주)대광건설은 광주에 본사를 둔 업체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하이테크밸리)에 2,740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구미시 최대 규모로 4월 중 임대를 위한 입차

인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괴평·송림지구 공동주택 사업 주체 (주)성한건설은 1,171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지난 1월 사업 승인을 받아 3월 중 착공해 5월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호 구미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체결에 동참해 준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양질의 주택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경주시 인구정책, 농치지 말고 한 번에 확인하자!"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부서별 138개 인구정책 통합 안내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에 배부 예정, 전자책 형태로 게시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 행정력 집중하겠다"고 강조

경주시가 '2024년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발간 예정인 이 안내서는 경주시가 시행중인 138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자세하게 수록됐다.

▲전일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다.

시는 이 안내서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시청민원실, 도서관을 비롯해 지역 병원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경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며, QR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인구 정책을 보기 쉽게 정리해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시민과 더 가까이!' 이강덕 포항시장, 우창동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이강덕 시장, "시민들과 포항의 미래 바꾸는 정책 함께 만들어 나갈 것"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우창동을 찾아 '시민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 참여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도의원, 자생단체장,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포항시는 주민과 직접 대면 소통하기 시민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 포항시는 지난해까지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포항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포항시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들

과 연계한 우창동 지역발전 사업들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의 시간에서는 추모공원 준공 이후 우창동 화장장의 활용 방안과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창포빛물펌프장 등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개선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하는 등 소통이 이어졌다.

또한 우창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 지역발전 방안 등 각종 건의 사항과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강덕 시장은 "주민들이 주신 소중



한 의견을 정리해 향후 시정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해

시민들과 포항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산시, '경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2024년~2027년)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발표

경산시는 15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 청년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종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연결하기(융복합) △함께 기회 만들기(일자리) △함께 부담 줄이기(주거) △함께 생활 그리기(복지·문화·교육) △함께 결정하기(소통·

참여·권리) 등 5대 정책 방향과 20여 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중점 추진 과제로 △청년특화거리 조성 △지역정주형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경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산 청년 퍼스널라이프 학교 △청년센터 조성 △청년참여 청년정책 공모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됐다.

또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전입 청년 대상 청년 정책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청년창업 성공 스토리 공유

△민간단체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문화·역사를 강조하기보다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나 기획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콘텐츠사업 선정 기준 제시 등 청년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으로 경산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들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살기 좋은 경산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제시된 정

책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청년들이 경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한울본부, 발전소 주변지역 농자재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북면농업협동조합 및 울진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농자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을 위해 비료와 토양 덮개 비닐 구매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2015년 북면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울진읍, 죽변면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였고 지금까지 약 24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는 북면, 울진읍, 죽변면 농업인을 위해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수 조합장은 "한울본부가 발전

소 주변지역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임경수 조합장은 "발전소 주변의 농가마다 비료뿐 아니라 토양 덮개 비닐까지 모두 지원해줘서 농업인들의 생업 만족도가 향상됐다" 라고 답했다.

이에 이세용 본부장은 "사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한울본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장재현/기자

ESG 선도기업 산실 서울소셜벤처허브... 지난해 매출 123억 원, 투자유치 89억 원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에이엔폴리'는 입주기간 동안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아 친환경 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 특성을 활용한 샴푸를 제작해 관련 박람회 출시 및 미국 등 해외시장에 납품했다.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인을 설립했고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속가능 부문 혁신상 수상 및 2023년 포브스 아시아 선정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은 15개 사로 입주당시(2021~2022년) 매출액은 총 59억 원에 불과했지만,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12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 신규 채용도 126명으로 기업별로 8명을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약자·환경·돌봄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기업의 이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업 초기 고정자금 투입이 어려운 예비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사무공간은 책상 및 의자, 서랍장 등 기본 사무기기가 제공되며 공유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강점으로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투자설명회(IR), 투자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밀착 지원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단순 창업을



'넷스파'는 페어망을 수거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사이클링) 소셜벤처로, 수중 페어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어획량 감소 문제 등 해양 문제를 해결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로부터 투자유치 밀착멘토링 지원을 통해 지난해 3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023년 유치한 30억 외에 2020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넷스파'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총 75억 원에 달한다.

'더그리트'는 기업의 사내 식당과 카페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ESG 경영실천 우수성을 인정받아 GS그룹 등 대기업 및 관공서에 다회용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 진입 후 2년 만에 더그리트가 제공한 다회용기 수량은 2300만 개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이 매출 123억 원, 청년 신규고용 126명, 투자유치 89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위해 2019년 서울시가 개관한 소셜벤처허브지원기관이다. 개관 후 현재까지 누적 신규고용인원 594명, 투자유치 220억 원에 달한다.

15개 입주기업 중 7개 사는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8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20년 15억 원, '22년 50억 원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도 44건에 달한다.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데에는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위치한 입지 조건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위치한 테헤란로(지하철 2호선 선릉역 도보 5분)는 벤처투자사, TIPS 등 창업지원 기관, 창업기획자들이 밀집해 있어 원활한 정보교류 등의 소통으로 소셜벤처의 성장과 사업확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개별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창

년 소셜벤처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별 전담 멘토가 중장기 사업계획 점검부터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립 및 사업실증(PoC) 지원비 연계, 시제품 제작과 제품 개선 등 소셜벤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안도 해준다.

한편, 시는 입주기업 간담회를 1월에 개최하고, 입주 기간 연장, 국내·외 박람회 참여 확대, 전문가 매칭 및 지원 필요 등 의견을 반영해 2024년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창업의 핵심이자 ESG 경영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업"이라며 "서울소셜벤처허브가 ESG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체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인재 고민? 내공있는 중장년 채용하세요” 서울시, 4050인턴 구인기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에 풀타임·파트타임 인턴 매칭

Experience never gets old. Experience never goes out of fashion.(경험은 절대 늙지 않아요.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 영화 '인턴' 대사 중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처럼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4050 중장년 인턴을 채용할 기업을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 4050'과 연계한 중장년(40~64세) 재취업을 돕는 '4050인턴십' 참여자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용기업에는 1인 최대 2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장년 인턴십은 지난해부터 조기 은퇴 및 경력단절 여성 등 40대를 대상에 포함, 작년 한 해 동안 총 412명에 새로운 일경험을 제공했다.

올해 인턴십 대상은 총 450명이며, 이중 125명은 풀타임이다. 풀타임 인턴십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등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며, 참여자들의 해당 기업에서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 기업에게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십 사업 참여기간(3개월) 동안 참여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우, 재단은 기업에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전체 운영규모 중 약 28% 정도를 풀타임 형태로, 나머지를 파트타임 형태로 추진한다.

재단은 올해부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풀타임 인턴십'을 도입했는데 참여자들에게는 충분한 현장실무 경험과 업무 역량 향상의 기회를, 기업에는 실제 채용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 57시간의 파트타임으로만 진행됐으나 일부 기업과 참여자들이 충분한 역량검증이나 실무경험을 쌓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풀타임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믿음직한 인재 추천과 인턴채용 지원금 등을 통해 중장년 채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턴채용에 참여할 기업 중 '풀타임



구분	풀타임	파트타임
모집시기	2.15.~예산 소진 시 ※ 상시모집 및 당월 정기 상사, 참여자 예행	(1차) 2.15.~3.7.10시 (2차) 5.7.~5.24.17시
참여대상	서울시 소재 기업(사업장)	수도권 소재 기업(사업장)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청권 기업(7만)
지원내용	• 민간·공공분야 영역 등 현장에서 인턴십 연계 및 지원 • 1인당 월 최대 900,000원, 3개월간 지원 • 50+포털(50plus.or.kr) 기업별 채용공고 게시	• 민간·공공분야 영역 등 현장에서 인턴십 연계 및 지원 • 월 최대 57시간 활동 (월당 최대 651,850원 지급 ※세사비(당사자 부담) 제외) • 단체 상해보험 가입, 교육 참여 등 제공
지원방법	재단 → 참여기업 참여기업에서 참여자에게 급여 선 지급,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재단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재단(센터) → 참여자 재단(센터)에서 참여자에게 활동비 직접 지급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상사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어야 하고, '파트타임 인턴십'의 경우는 수도권 소재의 기업·기관 및 협회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15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풀타임 인턴십은 상시 모집하며, 파트타임 인턴십은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풀타임 인턴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발하며, 파트타임은 1차(2월 15일~3월 7일)와 2차(5월 초) 모집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풀타임 인턴십은 50플러스포털에 참여기업별 채용공고문이 수시로 게시되며, 해당 공고에 지원한 중장년 중 기업이 대상자를 직접 선발, 3개월 이상 채용하게 된다. 인턴채용지원금은 초기 3개월간 1인당 최대 270만 원(월 900,000원)이다.

월 1회 정기심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부 확인 후 현장실사 및 전문심사위원의 선발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파트타임 인턴십은 기업이 신청한 필요치우에 따라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여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이 계속고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로 1인 최대 195만 5,550원(월 651,850원, 3개월)을 지원한다.

전문심사위원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참여기업을 선발한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올해는 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장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실제 고용형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풀타임 인턴십을 신규 추진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업과 중장년 세대 간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금강주택,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견본주택 2월 16일 그랜드 오픈



금강주택은 판교 부촌 대단지구에서도 명당 입지에 마지막 남은 대형 면적의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견본주택을 2월 16일 그랜드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판교TH212는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 브랜드

로 TH(Terrace House)와 공급 세대인 212세대를 합친 단이다. 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19-47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로 구성된다. 판교TH212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할 것이 예상돼, 시세차의 기대로 벌써부터 문의가 몰리는 상황이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판교TH212는 판교를 대표하는 부촌인 대단지구에 들어선다. 이 중에서도 단지에 걸맞게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안정적이며 재물이 모이는 터인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자리에 입지한다.

단지가 자리잡는 대장지구는 뛰어난 교통망과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 명문 교육환경을 갖췄다. 서판교터널 개통으

중·고교 등 명문학교와 10분 거리에 정자·미곡역 학원가 및 대장 초·중, 반디유치원, 공공도서관(예정)이 형성돼 있다. 또한 고가리 계곡, 청계산, 광교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일대에서 누릴 수 있는 여

설하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프리미엄급 단지답게 상품 설계도 신경 썼다.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조경의 물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계획, 다양한 수경어메니티 등 쾌적한 가든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등은 물론 수입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파룸, 3면 개방 파노라마뷰, 현관창고, 팬트리, 대면형 주방(아일랜드), 다락 등이 도입되며 다양한 구성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구조와 공간 배치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 주방가구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유명 주방가구와 유럽산 가전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6(양재화물터미널 내)에 위치해 있으며 16일 오픈 예정이다. 방문예약제를 실시하며, 견본주택 방문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기 때문에 미예약한 일반방문객들 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우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범상/기자



건이다.

대단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으로 선보이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개 평면, 총 20개 타입의 수요자 맞춤형 구성으로 설계된다. 100% 정남향 배치에 테라스와 다락을 특화

제23회 광양매화축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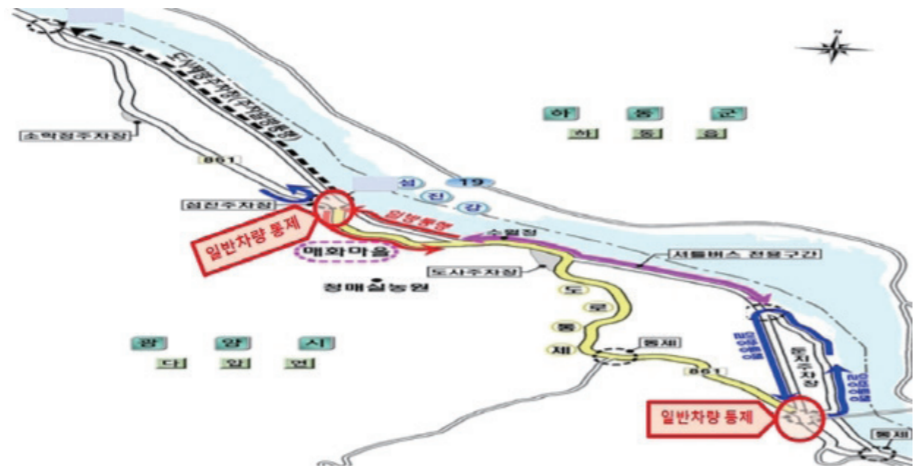
축제장 내 '차 없는 거리'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환경 마련

대한민국에 특별한 봄을 선사할 제 23회 광양매화축제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 특별 교통종합대책을 세우고 교통난을 유발하는 도로 인프라 수용 한계와 몰려드는 교통량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둔치주차장의 주차면을 대폭 확충하고 지난해 불편했던 셔틀버스 운행구간을 축제장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역주민, 버스, 행사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을 둔치주차장에서 섬진주차장 인근까지 전면 통제해 매화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교통약자 이동 차량 운영으로 모두가 즐거운 축제환경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거점별 교통상황을 실시간 송



출하고 축제장 진입 전 교통상황을 입간판으로 표출하는 등 방문객들이 차량 흐름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유

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종합안전관리 본부를 운영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우리 시는 광양매화축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한정된 도로 인프라로 폭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차장 확충, 무료셔틀 버스 구간 확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축제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23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봄의 서막 : 매화'를 주제로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열흘간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개최 이래 최초 광양매화축제 입장 유료화를 도입하되, 전액 축제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은 전면 무료로 운영된다.

이승준/기자

전 세계 탁구인의 축제,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2.16.~25.10일간 벡스코에서 개최, 총 47개국 2천여 명 선수 참가 예정...

조별 예선 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206 경기 진행

부산시는 탁구 종목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인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1926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5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고 (재)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총 47개국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탁구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국내에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0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 개최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2024세계탁구선수권대회 재유치에 도전했고 유치에 성공했다.

2021년 11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정기총회에서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원 테이블 원 월드(ONE TABLE ON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16장(남·여 각 8장) 주어지며 올림픽 전 초 대회로도 불린다.

남녀 각 40개국 5개국씩 남녀 8개 조로 부산대 그룹 예선 리그를 벌인

이후, 각 조 3위까지가 24강 토너먼트로 순위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 개최식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꿈을 담아 부산으로'라는 주제로 벡스코 제1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형준 시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하여 페트라 쇠링 ITTF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개최식에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색과 탁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와 퓨전 국악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며, 개최식 종료 후 대한민국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시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관·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메가 스포츠 대회 부산 유치와 더불어, 부산을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도시', 더 나아가 '글로벌 허브도시'임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연계 행사로 ITTF SUMMIT, 국제탁구연맹 회장배 유소년·생활체육 대회도 동시에 개최되며, 일 평균 1만 명 이상 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는 흥역 등 각종 감염병 관리를 비롯한 대회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희태/기자

강진군, 축제-관광-경제 시너지 시작된다!

K-컬처 원조, 강진청자축제 2월 23일~ 3월 3일 개최

축제의 도시, 강진군이 올해 첫 축제의 포문을 열어줄 '강진청자축제'를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52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자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번 축제는 청자의 정체성을 살린 '물레와 놀래'를 테마로 물레를 직접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흔치 않은 체험 코스가 마련되며, 여기에 맞춰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띄운다.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이 '강진 명품 청자 어울렛 4종'의 이름으로 선보인다.

차와 도자의 만남을 통해 '이한영 차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강진 차와 청자 찻잔을 같이 판매하며, 장미와 청자의 만남에서는 '화회의 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게 칠량에서 공수된 저마다 다른 15가지 빛깔의 장미들을 청자 화병에 꽂아, 청자의 바탕색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해 청자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막식 행사에는 땅시화회법인에서 관광객들에게 장미 천송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18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다산(茶山) 정약용이 극찬한 강진의 '차'와 전남 최대 점유품을 자랑하는 '장미'와 도자의 앙상블은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마케팅 축제로 평가받는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어린이

볼볼 슬라이드 ▲빙어잡이 ▲미니열차 ▲플레이셀라돈 키즈랜드 ▲청자 코일링 ▲청자머그컵 ▲샌딩아트 ▲청자풍경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청자 체험부터 이른 봄날 한때를 보내기 손색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인기 뮤지컬 '브래드 이발소'와 '신비 아파트'가 토요일과 일요일, 총 4일에 한정해 축제장 주무대와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하루에 2회씩 공연해, 관광객들을 축제장은 물론, 읍내 상권으로까지 모이게 한다는 전략이다.

축제장 한 켠에는 강진 주요 정책 4총사인 푸소, 고향사랑기부제, 반값 가축 관광 강진, 4차산업혁명 활용 등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며 '대면 긍정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자축제는 남도의 온화한 기후를 무기 삼은 봄내음 물씬 풍기는 축제로, 이미 꽃망울을 터뜨린 축제장의 흥매화와 지난해 5월부터 군에서 정성으로 관리해 온 유채꽃밭이 마음 급한 상춘객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개막식인 24일은 대보름으로, 군은 대보름 전통 먹거리 체험을 축제기간 내내 운영하며,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LED 쥐불놀이 등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도 준비된다.

지난해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줬던 족욕 체험장은 두 배로 확장했고 카페와 체험장으로 이용됐던 대형 에어돔을 올해는 3개로 늘렸다.

여기에 지역의 탄탄한 기업인 '동원 F&B'에서는 '청자골 치즈 만들기'를 운영하며, 읍내 한 병원에서 축제 후원을 문의해 오는 등 강진군의 기업과 상

가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축제 분위기는 한결 고조되고 있다.

읍면인이 함께 하는 축제 자리매김을 위한 '군민이랑 놀래day'도 눈에 띈다.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군민 데이'를 선정해, 축제 기간 중 총 나흘은 대군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성공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군민이 먼저 단합하고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강진원 군수의 신념이 반영됐다.

K-컬처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고려청자를 현대에 잇고 친근감 있게 조우할 수 있도록 ▲청자 입체 퍼즐 만들기 ▲청자 탁본 체험 ▲청자 도판 체험 ▲청자 파편 모자이크 등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강진 민간요에서 제작한 신상품도 전시된다.

강진 민간요에서 개발한 신상품은 박물관 속의 청자가 아닌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활 자기로서 청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상품들로 관광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개막식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고, 개막 축하쇼는 가수 장민호를 비롯해, 홍진영, 서지오, 문희옥, 양지원, 모세 등이 출연할 예정으로, 목포MBC, 여수MBC, 강진군 기관 SNS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되며, 녹화된 개막쇼는 이후 목포MBC를 통해 별도 방송될 예정이다.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도 청자축제 관광객 물이에 큰 동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동백축제는 만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 1,500여 그루의 아름다운 장관과 함께 다산과 혜장스님이 나눈 역사적 공간인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에 이르는 1km의

오솔길은 소나무, 비자나무, 차나무 등 천연연이 우거져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호젓하게 걸어보기 그만이다.

특히,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청자축제가 겸인하고 반값 혜택이 밀어주는 관광 명소, 강진의 올해 첫 도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지 벌써부터 지역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반값 관광에는 2월 15일 기준, 1,987팀 5,829명이 신청했다.

반값 여행은 강진 이외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 사전 신청 후 강진을 방문하면, 강진 여행 중 소비금액의 50%,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가족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 대거 유입의 수혜를 관광업(3차산업)은 물론, 강진의 특산물 등 1차산업까지 그 파급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골목 상권과 함께 강진 경제 전반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어 "갑질년 새해, 축제의 도시 강진의 첫 막을 올리는 강진청자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감동은 두 배로 비용은 절반으로 반값 가족여행 강진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윤호/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NAJU CITY

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사용 불허 및 필수의로 유지명령

현장점검 실시,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 발생 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사항 엄중 조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로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로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



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

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지아/기자

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개최

용인특례시는 16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지역 내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8년과 올해까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양성평등이 높고 여성의 안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경찰, 여성 폭력 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WITH YOU' 사업을 진행했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신고·옹호자 양성 교육 '우리동네 폭력 파수꾼'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재생 사업과 경력을 가진 여성 실태조사 등의 협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도시'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특례시가 지정된 것은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시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성평등이 높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장애 인식강사부터 사서보조까지... 서울시, 장애인 자립 돕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민간·장애인관련기관이 제안한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제공, 중증장애인 우선 채용 계획



장애 인식강사부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안내, 사서보조까지... 서울시가 장애 유형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한다.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직무 발굴은 물론 장애인관련기관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와 유용한 일 경험 제공을 통해 향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4년간 진행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 참여에 편중되어 장애인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향후 일자리로의 연결이 어려웠다는 올해부터는 실질적 자립이 가능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아 사업 참여 후에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공되는 특화일자리에는 ▲(재택)사무보조 ▲환경미화 ▲매장관리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 ▲사서보조 등 다양하다. 일자리 현장과 장애인관련기관

등에서 제시한 일자리 아이디어를 반영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에서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편의시설 및 온라인 콘텐츠모니터링 ▲장애인식 강사활동 ▲문화예술 활동(근로예술가 포함) 등 중증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직무 발굴을 적극 독려하고, 중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및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도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면접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올해 12월까지 주 20시간 근무하게 되며, 월 최대 10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만큼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취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전반적인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를 400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7억 원 증액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는 지난해 4,348개에서 400개 늘려 4,748개로 확대했고 예산도 480억 2200만 원에서 507억 5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심있는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참신한 직무와 다양한 근무처가 발굴됐다."라면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자립역량이 향상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전남경찰, '마을담당 순찰 중 화재진압'으로 생명구조



전라남도경찰청은, 지난 1월 31일 담당마을 순찰 중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대피 및 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경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31일 22시경 무안경찰서 현장파출소 소속 유정환 경감은 담당마을 순찰 중 주택가 목재 보관 장소에서 큰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주택 내에서 자고 있던 83세 집주인을 대피시키고 동시에 수돗물을 이용하여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화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담당마을 순찰 중 소중한 생명을 구한 배경에는 지난 10월 박정호 청장 취임 이후 도민중심 정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마을담당 경찰관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을담당 경찰관제도'는 고령화 지역인 전남지역 실정에 맞춰 경찰관 개인별 담당마을을 지정하고 근무 중 자율적 순찰과 주민에게 먼저 다가 문 제점을 발굴·해결해주는 선제적 경찰활동이다.

유정환 경감은 "전남경찰이라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담당마을 순찰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민들 또한 지난 12월 제도를 실시한 이후 경찰관들의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전남경찰청장은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함으로써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활동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배/기자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미스트롯3' 김소연, 6주 차 대국민 투표 2위 등극! 날로 치솟는 인기 증명



트로트 가수 김소연이 한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MZ 세대의 위엄을 입증했다. 김소연은 지난 15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3' 5라운드 라이브 매치 미션에서 삼각대전을 펼쳤다. 이날 김소연은 6주 차 투표 현황에서 2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날로 높아지는 인기를 입증했다. 이어진 라이브 매치에서 '미스트롯3' TOP14 나영, '미스

터롯2' TOP7 박지현과 팀을 이룬 김소연은 1차 무대에서 우연이의 '그 남자' 무대를 선보였다. 김소연은 04년생 동갑내기 나영, 박지현과 함께 '세 남녀의 MZ 로맨스'를 콘셉트로 당당한 소개를 펼쳤고, 남다른 동갑 케미를 예고했다. 특히 자신이 바라던 박지현과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되자 재해를 불렀고, "셋이 무대를

하면 밝은 무대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선곡 미팅부터 김소연과 나영의 라이브전이 펼쳐졌다. 김소연은 "나영이보다 더 간드러진 간들 보이스로 제가 나영이를 이겨보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고, 이어진 무대에서 완벽한 가창력과 댄스는 물론 과감한 퍼포먼스를 통해 색색하고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무대 후 은혁은 김소연에게 "가성비가 좋다. 춤추는 게 많이 안 움직여도 굉장히 눈이 간다. 매력을 잘 살리더라"고 말했고, 진성은 "4~5년 전 아기 때부터 노래를 들었다. 이제는 완숙미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와 함께 김소연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정 받았다. 한편 김소연은 어린 시절 동요대회 금상, 호주한인대회 1등, MBC '트로트의 민족' 준우승까지 거머쥐며 탁월한 보컬 실력의 챔피언으로 사랑받고 있다. EP 앨범 '또또'와 디지털 싱글 '국가대표'로도 전 연령대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최만식/기자

'미스트롯3',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 뒤집혔다! 배아현, 빈에서 꺾고 1위

TV CHOSUN '미스트롯3' 배아현이 TOP10 결정전에서 먼저 웃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3' 9회는 전국 16.5%(닐슨 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최고 17.7%를 기록하며 9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17.7% 최고 시청률은 박성윤이 지원사격을 한 빈에서, 윤서령 삼각대전의 마스터 점수 공개의 순간이었다. 준결승에 진출할 TOP10을 가리는 5라운드에는 1차선 삼각대전과 2차선 라이브 매치로 진행됐다. 먼저 삼각대전은 오디션 끝판왕 '미스&미스터롯' 시리즈 사상 최초로 혼성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미스터롯2' TOP7이 든든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 삼각대전은 '미스터롯2' TOP7 인기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마스터 총점 1100점으로만 승부가 가려진다. 라이브 매치는 마스터 총점 1100점에 관객 평가단 300점이 합산된다. 총 2500점 만점으로 추가 합격 없이 4명이 무조건 탈락하는 승락하는 경연이 시작됐다. 삼각대전은 1라운드 진이자 '꺾기 인간 문화제' 배아현, 2라운드 선이자 '나로호 6단 고음' 복지은이 '실킴시트' 진욱과 3인 1조를 이뤘다. 이들은 장운정의 '애가 타'를 선곡해 애절한 무대로 눈물바다를 만들었다. 마스터 박칼린은 "노래가 심플해서 어려운 곡인데 배아현씨가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게 했다"라면서 배아현의 뛰어난 가사 전달력을 칭찬했다. 이어 그는 "복지은씨는 노래는 잘했지만 늘 보여줬던 것만 보여주며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통 트로트 강자' 나영,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은 '미스터롯2' 선 박지현과 우연이의 '그 남자'로 격정 멜로 트로트에 도전했다.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정통 트로트를 잘하는 박지현, 나영 사이에서 김소연도 정통 트로트 소화를 잘했다"라면서 "나영도 힘을 빼고 노래를 하는 게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봤던 무대 중 기억에 남는 멋진 무대였다"라고 칭찬했다. 박칼린도 "경연이 아니고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대표로 공연하는 것 같았다"라고 극찬했다. 3, 4라운드 진인 '첫눈 보이스' 정서주와 2라운드 진인 '러블리 트로트퀸' 오유진은 '미스터롯2' 진 안성훈과 주병선의 '들꽃'을 열창했다. 정서주는 음색뿐 아니라 파워풀한 보컬의 힘을

발휘했다. 오유진은 힘을 빼고 유연한 가창으로 다시 한 번 성장했다. 주영훈은 "보통 사람이 생김이라면 정서주는 태어날 때부터 들기름이 잘 발라진 형언할 수 없는 맛이 있는 목소리"라면서 "한이 맺힌 발라드를 부를 때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오유진은 미역 같은 단단한 목소리를 가졌고 안성훈과 셋이 모이니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깊이 빠져들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요즘 이미지, 심수봉 전설들의 듀엣 무대가 있을까 찾아보는데 세월이 흘러 먼훗날 정서주와 오유진이 전설이 되어 오늘의 무대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극찬했다.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과 '트로트 임수정' 영유리는 '미스터롯2' 미진혜성과 나훈아의 '아이리예'로 달콤살벌한 삼각 로맨스 무대를 펼쳤다. 김연우는 "미스김은 워낙 노래를 잘해서 걱정 안하고 봤는데 역시나 노래에 잘 스며들었다"라면서 칭찬했다. 장운정은 뒷부분을 먼저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영유리에게 "정통 트로트를 잘하는 진혜성, 미스김과 함께 볼러서 부담감이 커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면서 "난 안되나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따뜻한 위로로 건넸다. 영유리는 자신 때문에 무대를 망친 것 같라며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터뜨려 안타까움을 안겼다. 두 명의 '감성 천재'들이 만났다. '미스터롯2' 감성천재 박성온과 깊은 감성으로 온국민을 사로잡은 빈에서가 한 무대에 오른 것. 여기에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적의 불사조' 윤서령까지 뭉쳐 유지나의 '미운 사내'를 발랄하게 재해석했다. 주영훈은 빈에서와 윤서령이 같은 옥타브로 마치 한 사람이 부른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것에 주목하며 "세 명의 천재들의 무대 잘했다"라고 칭찬했다. 진성은 "빈에서를 보면 저런 천재성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 활활산처럼 치고 올라가는 고음은 누가 감히 흉내 낼 수가 없다. 윤서령은 평소보다 정제되고 깔끔하게 부르려고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사이다 고음' 천가연과 '폭포수 보이스' 김나율이 '밀크보이' 최수호와 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마오'로 눈물샘을 자극했다. 천가연은 폭발력 있는 고음과 함께 유

려한 감성 호소력을 뽐냈다. 김나율은 절제되면서도 리듬을 타는 가창력을 자랑했다. '고막 여친' 정슬과 '난초 보이스' 박지은은 '미소천사' 나상도와 높은음자리 '바다에 누워'로 무대를 찼었다. 박칼린은 "정슬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 모든 걸 가볍게 해냈다. 박지은은 자신의 차례에 빛났고 초반 화음이 흔들렸는데 바로 잡았다"라고 칭찬했다. 1차선 삼각대전 모든 무대가 끝났다. 그 결과 1위 배아현(1056점), 2위 나영(1055점), 공동 3위 김소연&정서주(1053점), 5위 오유진(1048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6위 미스김(1045점), 7위 빈에서(1036점)가 뒤를 이었다. 8위 복지은(1021점)부터 공동 9위 윤서령&정슬(1020점), 11위 김나율(1019점), 12위 천가연(1018점), 13위 박지은(1012점), 14위 영유리(1005점)까지는 그야말로 박터지는 생생 경쟁이 예고돼 있다. 누구 하나 안심하기도 실망하기도 이른 벼랑 끝 단 2점차 초반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아직 1400점이 걸려 있는 2차선 라이브 매치가 남아있다. 앞서 '미스터롯2' 영광의 진 안성훈은 TOP10 결정전에서 1차선 1위를 기록했으나 2차선에서 부진하며 합산 8위에 머물렀다. 반면에 1차선 12위 탈락 위기였던 나상도는 2차선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준결승전에 1위로 진출했다. 격동의 라운드가 될 5라운드 2차선 라이브 매치는 10회에서 이어진다. 현재 '미스트롯3'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NOW. 앱에서 진행 중인 대국민 응원 투표를 두고 팬덤간의 경쟁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 초반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6주 차 투표 집계 결과 '꺾기 인간 문화제' 배아현이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던 빈에서를 제치고 왕좌에 오르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어 2위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 3위 '첫눈 보이스' 정서주, 4위 '감성 천재' 빈에서, 5위 '트로트 임수정' 영유리, 6위 '러블리 트로트퀸' 오유진, 7위 '나로호 6단 고음' 복지은이 TOP7에 올랐다. 한편 세상을 꺾고 뒤집은 TV CHOSUN '미스트롯3' 10회는 오는 22일(목) 밤 10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밤에 피는 꽃' 이하늬 들었다 났다는 오의식, 코믹스런 돌발 행동 '흥미진진'

'밤에 피는 꽃' 이하늬가 또 한 번 정체를 들킬 위함에 처한다.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기획 남궁성우 / 제작 김정미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극본 이생, 정명인) 11회에서는 조여화(이하늬 분)와 석정(오의식 분)의 아슬아슬한 만남이 그려진다. 여화는 한밤중 복면을 쓰고 일을 본 뒤 누군가로부터 쫓기자, 사당으로 도망쳐 소복으로 급하게 갈아입고 위패를 닦는 척 한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석정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검은 바짓단이 튀어나온 지도 모른 채 석정과 대화를 이어가던 여화는 뒤늦게 바짓단을 발견하고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런가 하면 여화는 장옷의 주인을 묻는 석정의 뜻 모를 말과 행동에 어리둥절해하고, 석정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당황스러워한다. 그런 상황에서 석

정이 여화의 검은 바짓단을 발견하고 그녀의 이중생활을 눈치 채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처럼 여화를 들었다 났다는 그의 돌발 행동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유발할 예정이다. 여화의 이중생활은 한 시도 조용할 날 없이 흘러간다. 술한 위기 속에서 여화가 과연 자신의 정체를 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게 만든다. 이와 관련 '밤에 피는 꽃' 제작진은 "남편 석정의 등장 이후로 여화에게는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남은 2회 동안 두 사람이 또 어떻게 엮이며 대체로 온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낼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 11회는 16일(금) 밤 9시 50분, 12회는 17일(토) 밤 9시 45분에 시작해서 85분간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환상연가' 기억 잃은 박지훈, 난관에 봉착한 흥예지! 종영까지 단 4회! 결말은 해피 엔딩? or 새드 엔딩?



'환상연가'가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13일(화)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환상연가'(극본 윤경아 / 연출 이정섭 / 제작 몬스터유니온, 판타지오) 12회에서는 사조 현, 악희(박지훈 분)가 모두 무력해진 상황에서 그를 구하려는 연월(홍예지 분)의 고군분투 덕분에 사조 현이 마비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연월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누구시오?"라고 묻는 사조 현의

모습이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며 인물들의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암시됐다. '환상연가'의 결말이 해피 엔딩을 향해 갈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정섭 감독과 윤경아 작가가 주목할 만한 관련 포인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연출을 맡은 이정섭 감독은 "각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사조 현과 연월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연출했다. 오직 복수만을

동력으로 살아오던 연월이 원수의 아들을 연민하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고민하고, 무력함에 괴로워하던 태사조 현이 연월과 만나 군주가 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함께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있을지, 앞으로 응원하며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남은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웹툰과는 또 다른 매력의 드라마를 집필해낸 윤경아 작가는 "'환상연가'를 통해 타인을 향한 원한과 복수심은 새로운 비극과 상처를 낳을 뿐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뱃속 깊은 원한으로 복수의 길에 올랐던 연월이 사조 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를 통해 시청자분들도 작품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상연가'는 사조 현과 연월, 사조 현과 사조 응의 대립 등 인물들 간의 수많은 갈등과 연민, 화해가 극전개에 있어 크게 주목을 이뤘다. 이와 관련 윤 작가는 "이 드라마는 사조 현과 악희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연민과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 몸에 갖든 두 개의 인격 사조 현과 악희, 두 인격이 사랑한 여자 연월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KBS 2TV 월화드라마 '환상연가'는 오는 19일(월) 밤 10시 10분 13회가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경북교육청,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목적사업비 지침 개정



경북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목적사업비 관리·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적사업비 편성과 집행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사업비를 운영하

학교 운영, 새로운 길을 열다

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사항은 △집행항목을 점검을 위한 학교 자체 중간 점검 시행 △ 학교 집행 실적 제출을 통한 정산 보고 강화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유사·중복되는 사업 조정 등이다.

특히, 과도한 목적사업비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학교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므로,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목적사업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부서·국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학교주변 유해환경 근절!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의성교육지원청,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학교 주변과 변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지원청, 군청, 보건소,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확인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합동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이상 흡수 등 목인.방조 행위 단속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단속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박명호 교육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교육청, 백문이 불여일타(打)! 인공지능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진화

체험학습 장소 선정부터 학교 업무경감 프로그램까지

경북교육청은 2월 중으로 도 교육청 누리집 내 인공지능 플랫폼인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 도입으로 문을 연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학습하고 생성하여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교육행정 업무자료를 제공한다.

누적 이용자 수 200만 명을 넘어선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2월 발전적 개편을 통해 경북 체험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과 주제별 코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지원과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답변 속도 개선과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더욱 향상된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임중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라며,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더욱 많은 분이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새로운 출발, 교사로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2024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개최

영덕교육지원청은 2월 16일(금)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2024학년도 초·중등 신규교사 20명(초등학교 교사 9명, 중학교 교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2024. 3. 1.자 영덕 관내 인사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들은 수여식에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 받고, 공무원 선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교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윤인한 교육장은 "교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선생님들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행복한 영덕교육의 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신규교사들을 환영하였다.

장문화/기자



봉화교육지원청, '2024 봉화유아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봉화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아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봉화 유아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2024 봉화유아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놀이를 세상을 배우는 따뜻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이라는 봉화 유아교육의 방향 아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희망을 주는 행복 교단, 따뜻한 마음을 더하는 교육복지, 협력하고 소통하는

교육 기반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는 "2024 봉화유아교육계획 설명회를 통해 봉화 유아교육의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이해하고, 유아를 놀이를 통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빛나는 졸업, 더 행복한 미래!

포항장량유치원, 제1회 수료 및 졸업식



포항장량유치원은 지난 16일(금), 유치원 강당에서 3, 4세 수료생 95명, 5세 졸업생 44명을 대상으로 제1회 수료 및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포항장량유치원은 포항시 북구에 설립된 유일한 공립단설유치원이다. 일반학급 8학급, 특수학급 2학급 등 모두 10학급 규모로 지난해 3월 문을 열고 제1회 수료생 95명, 졸업생을 44명을

배출했다.

3, 4세 유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진행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으며 졸업식은 유치원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을 돌아보며 재미난 기억을 회상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 졸업식인 만큼 유아·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식전공연인 바이올린 연주(곡명 작은별, 어머니 은혜)를 시작으로 졸업생 인사 동영상 시청, 졸업생 입장, 국민의례, 졸업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한 후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받으며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졸업생 유아는 "유치원에서 즐거웠던 추억이 많은데 친구들과 헤어지려고 하니 너무 아쉬워요.", "초등학생이 되어도 유치원을 꼭 기억할게요."라고 말하며 유치원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 더 넓은 곳으로 한발 내딛게 되었다.

포항장량유치원 졸업생들에게 유치원 생활이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유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소중한 자녀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첫걸음!

안동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목), 안동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영아, 유·초·중·고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4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소중한 내 자녀의 행복한 학교(유치원)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관내 영아, 유·초·중·고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새 학교(유치원) 적응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각 학교급별 현직 특수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프로그램 참가 대상에 따라 1부(영·유아, 초등)와 2부(중·고등)로 나누어 운영했다.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통합(특수)학급 입학 초기 적응 방법, 학교 급별 교육

과정 소개 및 중점사항, 특수학급 생활 및 통합교육 지원 방안, 통합(특수)교사와의 관계 형성, 질의응답 등이었다. 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교급별 세부 프로그램은 ▲1부, 유치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 유치원 새학기 적응 준비 솔루션! (점촌중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정민행)' ▲1부,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초등학교 입학&생활 가이드(남산초등학교 교사 박영빈)' ▲2부, 중·고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소중한 내 자녀의 슬기로운 중·고등학교 생활, 중·고등학교 3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안동

중학교 교사 손은경)'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보호자는 가정에서 학교생활에 대비해 준비할 점을 깨닫게 되었다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도 답을 몰라 막막했는데 직접 와서 현직 특수교사의 안내를 받으니 두려움이 해결됐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고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진·입학이 큰 전환점인 만큼, 입학적응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의미가 크다. 오늘 행사가 가정과 학교 간의 소통의 장이 되어 행복한 교육환경과 화목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기회가 되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예로운 퇴임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영주교육지원청, 퇴임교원 송공패 전수식

영주교육지원청은 16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4년도 2월말 퇴직교원 20명에게 송공패를 전달했다.

송공패 전수식은 3~40여년간 학교 현장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신 교원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자리로 2024년 2월말 퇴직교원은 초·중등 정년퇴직 3명, 명예퇴직 17명으로 총 20명이다.

오늘 행사는 교육장 축하, 송공패 전달, 퇴직교원 사회시간, 기념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고, 수여식에 참석한 이필훈 교장은 "지난 40여년간의 교직생활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누구보다 함께 해준 동료교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2024년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대영 교육장은 송공패를 통해 "평생을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송공패를 전한다"며 "비록 학교는 떠나지만 후배 교사와 학생들에게 훌륭한 선배와 스승으로 남아 영주교육의 더욱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금자/기자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24.
2.22(목) ~ 25(일)
울진군 후포항 일원



맛있는 대게 여행,
후포항에서 모이자~

|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 후원 |  한수원주 | 한울원자력본부